

동양선교교회 분쟁 종결, '부흥' 향한 힘찬 도약

동양선교교회(담임 김지훈 목사)가 법원의 판결로 분쟁을 종결하고 부흥을 향한 힘찬 도약에 나선다.

지난 2020년 12월에 시작된 분쟁은 지난해 10월 LA카운티수피리어법원의 원심 판결에 이어, 지난 4월 가주항소법원에서 교회 측의 손을 들어주며 모든 법적 분쟁이 마무리 됐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분쟁의 발단은 당시 담임 목사를 제외하고 유일한 당회원이었던 장로가 교회가 진행하려고 하는 임시공동의회에 반대하면서 시작됐는데, 법원은 교회의 공동의회를 인정하고 교회측에 제기한 원고의 주장을 기각시켰다.

동양선교교회 교인들과 목회팀은 코로나 19라는 팬데믹과 함께 닦쳐온 어려움을 '하나 됨'으로 견디고 이겨냈다.

그동안 소수가 일으키는 반복적인 시비로 힘든 시간을 보냈던 동양선교교회 교인들은 이번만큼은 목회리더십을 지키자고 나섰다.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지 못하자, 연료한 권사들은 주머니의 쌈짓돈을 꺼내 목회자들의 가정을 살폈다. 또 교인들은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 울부짖으며 간절함



동양선교교회 김지훈 목사(가운데)와 목회팀은 교회의 새로운 도약과 부흥을 준비하고 있다.

으로 기도했다.

동양선교교회 목회팀은 어려운 시간을 함께 겪으며 더욱 단단한 결속력을 갖게 됐다. 특히 담임 목사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부목회자들과 가족 같은 팀워크를 이뤄 교회를 세우고자 애쓰는 김지훈 목사를 중심으로

로 하나가 됐다.

남가주 지역 교회 목회자들의 기도와 다양한 지원도 교회를 든든하게 붙들어줬다. 송병주 목사, 권혁빈 목사, 이상훈 목사, 김신일 목사 등 미가 소속 목회자들은 부흥회를 비롯해 특별새벽기도회, 고난주간 설교 등을

통해 동양선교교회가 힘든 시간을 인내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

요즘 동양선교교회에는 웃음 소리가 그치지 않는다. 교인들 입가에 미소가 번진다. 예배에도 따뜻한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어려운 시간도 서로를 사랑으로 돌보며 기도로 하나 됨을 이뤘었기에, 이제는 회복을 넘어 부흥을 꿈꾸고 있다.

김지훈 목사는 '행복한 교회'를 향해 나아가 갈 방침이다. 그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교인들이 위로와 사랑을 넘치도록 받아 누리고, 커뮤니티와 사회를 섬기는 교회로 나아가길 소망하고 있다.

김 목사는 "동양선교교회 성도님들은 모두가 너무도 귀한 분들이다. 동양선교교회가 이제는 더욱 굳건한 반석 위에 서서, 성도들이 행복한 교회, 마음을 나누고 위로를 전하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고자 한다"며 "선교적 교회로서 지역 사회와 커뮤니티를 잘 섬기는 교회, 세상과 교회를 이어주는 다리가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동욱 기자
[2면에 이어서 계속]

미국 성인 69% "나는 종교적...작년보다 12% '쑥' ↑

美 라스무센 리포트 조사
응답자의 42%,
"예배 늘수록 미국 나아질 것"

미국에서 종교적 쇠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미국 성인의 10명 중 약 7명이 "자신을 종교적"이라고 답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미 여론조사기관 라스무센 리포트(Rasmussen Reports)는 올해 9월 20일부터 21일까지 미국 성인 115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 온라인·전화 설문조사 결과를 지난주 발표했다.

조사에서 응답자의 69% "자신이 종교적"이라고 말했으며, 24%는 "매우 종교적"이라고 응답했다. 이 결과는 2021년 6월 라스무센이 실시한 설문 조사 당시 57%보다 12% 증가한 수치다.

일상생활에서 종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묻는 질문에 미국 성인의 61%가 "종교는 중요하다"고 답했으며, 그중 31%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2018년 12월 여론조사에서는 71%가 "신앙이 일상생활에 중요하다"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의 41%는 교회, 유대교 회당, 모스크의 예배에 "거의 또는 전혀 참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21%는 "가끔 예배에 참석한다"고 말했으며 15%

는 "매주 참석"한다고 했다. 이어 "한 달에 한두 번 참석(7%)", "최소한 달에 한 번 참석(6%)",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가겠다(6%)"라고 보고했다.

매주 종교 예배에 참석한다고 답한 성인 중 29%는 공화당원이었으며, 무소속 19%, 민주당원 16% 순이었다. 또 민주당원의 45%는 "예배에 거의 또는 전혀 참석하지 않는다"고 답한 반면, 무소속 응답자는 44%, 공화당원은 31%에 그쳤다. "무교"라고 답한 응답자는 무소속(26%), 민주당원(23%), 공화당원(9%) 순이었다.

응답자의 42%는 "더 많은 사람이 정기적으로 종교 예배에 참석한다면, 미국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으며, 30%는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13%는 "더 자주 예배에 참석하면 미국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15%는 "확실하지 않다"고 했다.

정당별로는 공화당원(65%)이 민주당원(36%), 무소속(30%)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종교 예배에 참석하면 미국에 득이 될 것"이라는 데 압도적으로 동의했다.

"신앙이 삶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답한 의견은 여성(33%)이 남성(29%)보다 높았다. 하지만 남성(45%)이 여성(40%)보다 "더 많은 사람이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면 미국을 더 나은 나라로 만들 것"이라는 의견에 더 동의했다. 김유진 기자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미국 ↔ 한국 ₩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쉬 OUT / 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 / 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7 Day 24hours (213)400-6363

www.marhlaw.com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벼이 되길 희망합니다!

■ 상법 / 부동산법 ■ 배크립시 ■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에 관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대면·전화상담 예약 213.820.3704



www.marhlaw.com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벼이 되길 희망합니다!

변호
의뢰인의 처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 변호

실력
문제의 핵심이슈 파악 법에 관한 해박한 지식과 적용

정성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하는 것을 원칙

책임
모든 과정에 대한 책임 의뢰인과의 대화 창구 활짝 열림

신뢰
의뢰인과의 인연을 소중히 생각

상법 / 부동산법
상법의 전반적인 분야(비즈니스, 부동산법, 세관법, 운송법, 국제법, 특허법)에 걸쳐 오랜 기간 그 실력을 인정받아 온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에 관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그 어느 분야보다도 상법에서는 지략과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피지가 이루어지려면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긴밀한 대화와 그로인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배크립시
배크립시는 새로운 출발은 물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법이기도 하지만,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로 선택리 해서는 안됩니다. 꼭 변호사와 상담을 하신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현)마동환 변호사 그룹 대표
(현)국제이비스 USA 이사장
(현)남가주 교회협의회 고문 변호사
(현)재미발명가협회 고문 변호사
(현)중부상업회의소 이사장

마동환 변호사그룹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213.820.3704
사무실 : 213.487.9190
F a x : 213.487.9484 marhlaw@yahoo.com
Main : 700 S. Flower St., #1000 LA, CA 90017
3435 Wilshire Blvd, #2700 LA, CA 90010

대면·전화상담 예약 모든 상담 절대 비밀 보장

[1면 "동양선교교회 분쟁 종결..." 이어]



동양선교교회 김지훈 목사

동양선교교회는 또 2세 교육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1세대 부모들의 신앙이 다음세대와 공감되고 부모세대와 함께 자연스럽게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 공동체를 지향한다. 이를 위해 2세대에게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1세대를 이해함과 더불어 부모세대와 교류할 수 있는 장을 열어갈 계획이다.

김 목사는 "부모 세대의 믿음의 유산들이 다음세대로 잘 전해지고 전 세대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되길 소원한다"며 "다음 세대가 부모 세대와 함께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교회로 나아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창립 5주년 맞은 한샘교회, 장로·권사 임직식 가져

한샘교회(담임 이순환 목사)는 지난 6일 교회 창립 5주년 감사예배 및 장로·권사 임직식을 거행했다. 이날 임직식에서는 박제근 시무장로, 박메리 시무권사 등 두 명이 임직을 받았다.

"우리 교회는 건강합니다"(행 5:12-16)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이순환 목사는 교회 개척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임직자들에게 하나님과 교회 앞에 충성된 성도가 되자고 당부했다.

이순환 목사는 "한샘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 전파를 위해 흠여지는 교회, 교제하고 봉사하며 성령으로 충만한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며 "한샘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세상에서도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자"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 잃



한샘교회 창립 5주년 감사예배 및 장로 권사 임직식 기념촬영

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상처받은 이들을 치유하는 성도들이 되자"고 덧붙였다.

이날 한샘교회 창립 5주년 감사예배 및 장로·권사 임직식은 최진현 목사의 축사와 축도로 마쳤다. 김동욱 기자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선교사 자녀 50명에게 장학금 지급

장학생 선정 지역교회,기관 추천 12월 중 장학금 전달 예정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회장 신용, 이하 연합회)는 5일(토) 에반젤리아대학교 채플실에서 11월 조찬기도회를 갖고 지난달 상황에 열린 선교사 자녀 장학금 마련 골프대회의 경과를 보고했다.

연합회는 장학생 선발에 있어 교회와의 연합을 강조하면서 교회와 기관의 추천으로 40명, 연합회 임원, 이사들의 추천 10명 등 총 5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장학생 선발은 고등학생, 대학, 대학원생으로 한 가정에 한 명으로 정하고, 이전에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제외하기로 했다. 또 한국과 미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도 대상에서 제외하며, 낯선 오지와 선교기간이 오래된 선교사 자녀에게 우선 혜택을 주기로 했다.

장학금 전달식은 이번 골프대회 명예회장 은혜한인교회 한기홍 목사의 인도로 12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11월 정기 조찬기도회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월 중에 진행할 예정이다.

신용 회장은 "이번 골프대회를 통해 50명의 선교사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어 기쁘다"며 "하나님과 협력해 주신 많은 후원자들, 연합회 임원, 이사들께 감사한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이어 "연합회는 선교사 자녀 장학금 지원이 차세대 인재양성과 복음을 위해 삶을 바친 선교사님들께 적으나마 도움

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지역 교회와 단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한편 신용 회장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기도회는 서문준 이사의 대표기도에 이어 동부사랑의교회 우영화 목사가 "참된 행복"(시 1:1-6)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우영화 목사는 설교에서 유명 방송인이자 요리사인 앤서니 보데인의 자살 뉴스를 연

급하며 "지구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라고 했던 그도 진정한 행복을 찾지 못하고 자살함으로써 행복을 찾으려 했듯이,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참된 행복은 시편 1편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과 함께 할 때이다"라며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은 참된 행복을 찾는 존귀한 삶이 되길 소망한다"고 전했다.

대표기도에서 서문준 이사는 "40여 년을 한결같이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 드리고, 연합회 활동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소망한다"고 기도했다.

합심기도 마무리 기도에서 임재선 장로는 "선교사자녀 장학금마련 골프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치게 하신 하나님과 협력해 준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린다"고 기도하고 "선한 일에 쓰임 받는 연합회가 되게 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다.

연합회는 이날 한국 이태원 참사로 인한 희생자와 그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OC 지역 사회와 교회의 부흥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고, 11월 8일 선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치인이 배출되기를 합심으로 기도했다.

US아주투어 동아대병원과 MOU 체결

US아주투어(대표 박평식)는 동아대학교병원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의료관광 개발 및 운영에 나서기로 해 화제다. 이로써 모국으로의 의료관광이 더욱 편안하고 풍성해질 전망이다.

US아주투어와 동아대병원은 비싼 의료비와 언어 문제로 미주 한인들에게 발생하

는 미중족 의료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향후 의료관광 서비스 설명회, 의료진이 동행한 의료 상담회를 개최하고 미국의 높은 의료비를 고려하여 중증, 고가 검사를 포함한 건강검진 패키지를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박평식 대표는 "미국의 높은 의료 수가

로 중증치료를 받기 부담스럽거나, 언어적 문제로 현지 병원에서의 치료를 불편해하시는 한인들이 많이 계시다. 또한 여행 혹은 가족 방문을 위해 한국 방문 시 건강검진을 받고 싶어 하는 수요도 굉장히 많다"라고 전했다.

박 대표는 이어 "부산 지역 대표 대학병원인 동아대병원과 중증 특화 치료 상품을 개발하고 기존 서울에 집중되었던 건강검진 서비스를 확장해나갈 계획"이라

고 덧붙였다.

또한 US아주투어는 이를 기념하여 11월에(愛) 특별 대잔치를 개최한다. 11월 한 달간 모국관광 상품을 예약하는 고객들에게 현지에서 현금 10만원을 증정한다. 아주의 서울지사가 직접 운영해 믿을 수 있으며, 전 일정 VIP 버스를 보장한다. 한국관광공사가 제공하는 1개월짜리 한국 전화 유심카드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김동욱 기자



2023년 봄학기 게이트웨이 신학대학원의 한영이중언어과정(KEB)에서 학생을 모집합니다.

■ 등록마감일 : 유학생 11월 1일, 미국거주자 12월 15일

CONTACT FOR MORE INFORMATION : 909-687-1649 EXT.1320 KEB@GS.EDU OR VISIT : www.gs.edu/keb



-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MTS), 기독교교육학석사(MAEL), 선교학석사(MGE)
- 주 소 : 3210 E. Guasti Rd, Ontario, CA 91761

한영이중언어과정(KEB,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은

- 한국어와 영어로 진행되는 이중언어 과정입니다.
- 세계 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회가 후원하며 게이트웨이(구, 골든게이트)의 탁월한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이민교회와 더 나아가 세계를 섬기는 역량있는 기독교 지도자 양성 과정입니다.
- 수업 진행은 대면, 원격,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 북미주 최고의 학력 인증 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ATS)와 WASC Senior College and University Commission(WASCU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022 MiCA 컨퍼런스 “선교적 교회, 회복과 성장을 꿈꾼다”

오는 14일(월)~15일(화)
선한청지기교회

2022 MiCA(Missional Church Alliance) 컨퍼런스가 오는 14일(월)부터 15일(화)까지 선한청지기교회 (담임 송병주 목사,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에서 개최된다.

“Missional DNA”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는 올가늌 교회 운동가인 닐 콜

목사를 비롯해 태피스트리 LA 찰스 최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강준민 목사, 평촌새중앙교회 황덕영 목사가 강사로 나서 ‘선교적 교회 회복과 성장’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전략을 나눈다.

컨퍼런스를 준비하는 MiCA 대표디렉터 이상훈 총장(AEU 미성대)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많은 교회들이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이 때에, 교회의 역동성 회복이 어느 때 보다 절실하다”며 “선교적 교회를 꿈꾸는 리더들이 모여 본질을 고민하고, 교

회 연합과 갱신을 통해 하나님 나라 운동에 참여하기 원하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을 초청한다”고 전했다.

컨퍼런스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참가비는 담임 목회자는 50달러, 부교역자는 20달러다. 개척교회 목회자는 등록비가 면제되며 QR 코드를 이용해 사전 등록을 해야 한다.

문의는 전화 626-228-6557 또는 이메일 micanetworking@gmail.com로 할 수 있다.

기독일보 감사절 추천도서

“나를 일으켜 세우는 감사”

이장렬, 이충재 저 (요단출판사, 2020)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 주실 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고도 깊다. 그러한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 삶에 늘 감사가 넘쳐도 놀랄 것이 없겠지만, 우리의 실제 삶은

그렇지않은 듯하다. 코노라(COVID19)의 장기화로 어려움과 고난이 겹쳐오는 요즘 우리의하루는 험사리 불평과 염려로 그리고 짜증과 원망으로 가득 차곤 한다. 이러한 때 꼭일독을 권하고 싶은 책이 있어 소개한다.

《나를 일으켜 세우는 감사》는 성경 묵상을 통해 성도들이 참된 감사를회복하며 이를 통해 그들의 지친 영혼과 삶이 다시 새 힘을 얻고 일어서는데 도움이되고자 하는 바램에서 쓰여진 책이다. 이 책은 3주간에 걸쳐 묵상할 내용을 담고 있는데, Days 1-7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며 인생의 한복판에서 친히 만나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리는 시편 136편을 집중 묵상한다.

Days 8-16은창세기부터 역사서에 등장하는 주요 본문들을 묵상하며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신실하심에 감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지막 부분인 Days 17-21은 마태복음 ‘팔복’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복과 그 참된 복을 누리는 삶에 관해묵상한다. 저자들은 이를 통해 주께 감사하도록 독자들을 이끌고 격려한다.

삶과 신앙의 도전을 거세게 경험하는 매일수룩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를 창조하시고우리 죄를 사하시고 구원의 완성을 약속하시며 이를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에게 집중해야 한다. 그럴 때일 수록 그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며, 감사를 더 확실하게회복해야 한다. 그렇게 회복된 감사가 실은 우리를 일으킨다! 그러니까 이 책의 제목처럼말이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의 한복판에서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새로이회복하기 원하는 모든 분들께 《나를 일으켜 세우는 감사》를 강력히 추천한다!

[저자 소개] 이 책은 이장렬 목사와 이충재 목사가 공저했다. 이장렬 목사는 2010년부터 캔자스시에 소재한 미국 남침례교단 소속 미드웨스턴침례신학대학원(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에서 신약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충재 목사는 현재 미국 뉴저지 동부 개혁신학교(Eastern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에서 교수로 사역하고 있다.

마커스워십 소진영 X 원하트워십, 미주 디아스포라 예배자 찬양 집회 열린다

12월 3일(토) 저녁 7시
남가주 동신교회

‘마커스워십 X 원하트워십’ 라이브 워십 집회가 12월 3일(토) 저녁 7시, 플러튼에 위치한 남가주 동신교회에서 열린다.

이번 워십 집회는 마커스워십의 소진영 찬양 인도자가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해 원하트워십과 함께 예배한다. 집회 티켓은 20달러이며 모든 수익금은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찬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미주 한인 찬양 사역자들을 격려하고, 음원을 제작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라이브 워십 집회 후원티켓은 www.oneheart-usa.com에서 구매 가능하며, 티

켓 오픈 일시는 11월 1일 오전 9시부터이다. 장소로 인해 한정된 수량만 판매되며, 지정석 없이 입장순으로 자리를 선택할 수 있다. 라이브 워십 집회는 단 한번 열리며, 참여하지 못하는 타 지역 예배자들을 위해 소진영 사역자의 개인 간증집회도 예정되어 있다.

소진영 찬양 인도자는 마커스워십의 예배 인도자이며 싱어송라이터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늘 함께하시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나의 삶의 결이〉, 〈주 은혜임을〉, 〈주는 완전합니다〉 등등 성도들이 애창하는 수많은 찬양을 만들고 노래한 사역자이다.

엘에이 지역에서는 12월 2일 금요일 저녁

7시45분 ANC 온누리교회에서, 네바다 리노 지역에서는 12월 9일 금요일 저녁7시30분 리노한인장로교회에서, 산호세 지역에서는 12월 11일 주일 오후1시 45분 산호세 새누리교회에서 열린다.

특히, 엘에이 지역에서의 간증집회에는 한국과 캐나다에서 찬양 사역자로 활동하는 이실라 전도사가 게스트로 출연하여 연합의 의미를 더할 것으로 보인다.

‘마커스워십 X 원하트워십’ 집회에 대한 문의사항은 213. 347. 5080으로 하면 된다.

한편, 원하트 미니스트리리는 지난 8년간 남가주 지역에서 찬양과 문화사역을 감당해왔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역을 구상하며 미주 지역의 예배사역과 문화를 위해 사역할 예정이다.

서사라 목사 신학사상 등 평가 및 연구한 책들 출간돼



서사라 목사의 신학사상 등을 평가 및 연구한 책들이 출간됐다.

‘천국과 지옥’ 간증수기의 저자인 서사라 목사의 신학사상을 평가한 책이 출간됐다.

한국기독교연구소(K-CRI) 소장대 백석대 겸임교수를 역임한 서영곤 목사(Th.D.)는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신인성’ 교리 관점에서의 서사라 목사의 신학사상 평가(하늘빛출판사)를 펴냈다.

저자는 ‘기독교의 본질적 핵심교리’를 평가의 기준으로 해 서 목사의 간증 저서 8권

속에 담긴 에피소드들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중심으로 서 목사의 신학사상을 유추해냈다.

저자는 “서 목사는 그리스도의 선재성과 신성을 깊고 의미 있게 이해하며 인식하고 있다”며 서 목사의 저서에 대해 “영적인 내용과 신학적 교훈이 담긴 천상의 에피소드들로 구성된, 진솔하고 건전한 저술인 것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아울러 “서사라 목사는 기독교 개혁신학의 정통과 성경 교리에 저촉됨이 없는 건전한 정통 개혁주의 기독교 신학사상을 가진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며 하나님 나라의 바른 복음의 전파자로 사료된다”고 했다.

저자인 서영곤 목사는 성균관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플로리다 공대 컴퓨터공학 석사, 한양대 대학원 교육공학 박사, 미국 캘리포니아 센트럴대학 목회학석사(M.Div.),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Wgst) 신

학석사(Th.M.), 예명대학원대학교 신학박사(Th.D.) 학위를 취득했다.

한편, 에녹과 엘리야를 중심으로 승천의 의미와 전승을 서사라 목사의 깨달음과 비교연구한 소책자(소나무마을출판사)도 나왔다.

김성규 박사는 이 책의 서문에서 서 목사에 대해 “에녹과 엘리야의 승천과 천상의 경험을 학문적으로 규명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했다.

김 박사는 이 책의 결론에서 서사라 목사의 성경 해석 방식에 대해 “비록 천상 경험으로부터 오는 주관적 해석이 강하지만 성경적 전통과 학자들의 해석과도 거리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며 “다만 천상 경험이라 할지라도 성경적 전통과 하나님의 영감을 토대로 연구하는 전문적 학자들과의 학문적 교류는 여전히 필요한 과제로 생각된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정확하고 최고로 빠른 리페! 5년 연속 환자 만족도와 의료진의 진료 수준 별 5개의 최우수 등급 메디칼 그룹!

시니어분들이 건강 영웅! 서울메디칼그룹

메이저 리그 코리아인 특급 박찬호

SMG 서울 메디칼 그룹
SEOUL MEDICAL GROUP

TEL 213.389.0077 • 800.611.9862

※ 광고에 나오는 인물들은 모두 실제 환자는 아니며 서울 메디칼 그룹의 모델팀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찬수 목사도 차별금지법 반대 1인 시위

“우리 자녀들 위해 나왔다” 3일 아침 국회 6문 앞에서 법안의 부당함 호소

분당우리교회 이찬수 목사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국회 앞 1인 시위에 동참했다. 이 목사는 3일 아침 서울 여의도 국회 6문 앞에서 진행된 이 시위에 나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이 목사는 “다음 세대 우리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을 위해서 뭐라도 좀 도움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왔다”며 “차별금지법을 앞서 시행한 유럽이나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를 보면 그 혼란이 우리 같은 기성 세대에도 있지만, 그 다음 세대 청년들과 청소년들의 가치관의 혼란이 생각 이상으로 너무 심각한 걸 알고 듣고 했기 때문에 이걸 방치할 수 없다고 해서 나오게 됐다”고 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선 “모든 크리스천들이나 목회자 분들이 다 안타까워 하는 게, 이걸(차별금지법 반대)을 자주 기독교에 대한 오해와 불신으로 조장하는 것이다. 그게 마음이 아프다”며 “누구보다 차별을 금지하기를 우리는 원하고 또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차별금지법을 반대하자는 건 아닌 건 누구나 아실 것이다. 우리는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잘 섬기고 싶은 하는 마음이 있다”고 했다.

이 목사는 그러나 “이 큰 단어 아래에서 슬쩍 끼워넣은 혼란스러움을 만들 수밖에 없는(것이 있다)”며 “지금 미국이나 캐나다나 유럽에서 차별금지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두루뭉실 넘어가고 나니까 거기서 생각지도 못했던 가치관의 혼란과 또 청소년들과 젊은 세대의... 그건 제가 일일이 말씀 안 드려도 매일 접하는 기사와 뉴스의 내용 그런 것이 아니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 자체가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서야겠고 마음에 결심하고 좀 비장해지는 게 바로 며칠 전에 이태원에서 너무나 가슴 아픈 우리 청년들의 참사가 벌어졌기 때문”이라며 “정신적 문제든 육체적 문제든 다음 세대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우리가 앞장서서 막겠다. 이후에 부당한 어떤 차별이 일어난다면 방지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큰 포괄적으로 용어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국민들이 잘 인식하지 못 하는 요소들이 들어 있지 않은 지, 그것들을 점검하고 골라내고 그래서 제대로 된 차별금지법을 만들기를 저희는 모두가 원하고 있다. 그걸 호소하러 제가 여기 나왔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국민들을 향해 “저희들처럼 신앙적인 관점과 이유를 갖고도 이것을 막



차별금지법 반대 국회 앞 1인 시위에 동참한 이찬수 목사 ©송경호 기자

아야 된다는 그런 양심의 소리가 있는데, 이런 신앙의 문제가 아니더라도(막아야 할 이유가 있다)”며 “저는 우리 집에서 자라는 자녀들을 포함해서 아이들을 보면 너무 불쌍하다. 왜냐하면 저희가 자랄 때는 지금보다 훨씬 가난했고 놀거리도 별로 없었고 먹을 것도 별로 없어서 배고픈 적도 많았지만, 이런 어떤 가치관의 문제로 혼란을 겪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남자 아이들끼리, 심지어는 대학교에 들어가서도 남자 아이 친구끼리 손을 잡고 가고 같이 꿈을 나누고, 또 여학생들은 캠퍼스에서 어깨동무 하고 손을 잡고 가도 누구도 그것을 이상하게 보고 왜곡되게 보고 하는 게 없었다”며 “그 때는 스킨십이라고,

하이터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관으로 있었다”고 했다.

이 목사는 “이 정도에서 머물러도 비극인데 더 심각하게 치닫는 건 진짜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신앙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국민들, 특히나 자녀들을 기르고 계시는 부모님들은 이 사안의 심각성(을 아셔야 한다)”며 “지금도 말로 다할 수 없이, 가치관의 혼란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했다.

이 목사는 “교과서 문제라든지 계속 이런 교육들이 일어나게 되고, 또 바른 이야기는 하면 불법이라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면 정말 걸잡을 수 없는 교육의 위기와 다음 세대의 혼란이 있지 않을까”라고 했다.

그는 “크리스천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이런 일들을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미약하나마 힘을 보태서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이런 혼란 없이, 갈등 없이 하나님 형상을 닮은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이 순수함 그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는 기도하겠다”며 “힘을 모아서 여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필귀정이 일어나도록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최근 매주 목요일 아침마다 국회 6문 앞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1인 시위가 열리고 있다. 앞서 영락교회 김운성 목사,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 중앙성결교회 한기재 목사 등이 이 시위에 동참했다. 김진영 기자

여의도순복음교회, 이태원 유가족에 10억 위로금

이영훈 목사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울며 우리 할 바 다할 것”

여의도순복음교회가 이태원 참사로 절망에 빠진 피해자 가족들에게 위로금 10억 원을 전달하기로 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이영훈 담임목사는 “교회는 성경의 말씀처럼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울며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을 위로하고자 우리의 할 바를 다할 것”이라며 “한국교회가 이 일에 함께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지난달 30일 발표한 메시지에서 “귀중한 자녀와 친척, 친구들의 생명을 잃은 유가족들을 비롯 많은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아직도 병원에 있는 청년들이 속히 회복되어 가족 품으로 무사히 돌아오기를 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이번 사고로 목숨을 잃은 청년들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고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곳이 되도록 노력하는 데 전략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김진영 기자

한교연 임원단, 이태원 희생자 합동 분향소 조문



한교연 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등 임원단이 2일 오후 서울 시청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한교연

11월 10일(목) 오전 7시 희생자 애도 기도회 갖기로

한국교회연합(한교연) 등 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등 임원단이 2일 오후 서울 시청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조문단은 이날 국화꽃을 헌화하며 희생자를 애도하고 슬픔에 잠긴 유족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임하기를 간구했다.

임원단은 조문을 마친 후 서울시청 잔디광장에 따로 모여 희생자 유가족의 아픈 상처와 부상자들의 속한 쾌유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

을 가졌다. 대표로 기도한 서기 홍정자 목사는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젊은이들을 생각할 때 가슴이 아프다”며 “한국교회가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하신 말씀대로 슬픔에 잠긴 유족들을 위로하고 다시는 이런 불행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솔선수범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한편, 한교연 대표회장 송태섭 목사는 지난달 31일 발표한 긴급담화문에서 “거룩한 주일 아침에 지난밤 서울 이태원에서 일어난 끔찍한 참사 소식을 접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정전벽력 같은 소식을 접하고 망연자실할 유가족 여러분께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임하시길 빈다”며 한국교회가 주일 또는 수요일에 희생자와 가족, 부상자를 위해 기도하는 등 국가적 아픔에 동참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한교연은 ‘국가애도기간’ 중 희생자에 대한 추모를 위해 당초 1일에 예정했던 제2회 국가조찬기도회를 오는 10일 오전 7시로 연기하는 한편 이날 기도회를 ‘이태원 참사 희생자 애도’를 겸해 열기로 했다. 김진영 기자

기독교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박기호, 김종업,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웅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08 Wilshire Blvd, #200, Los Angeles, CA 90010

탈봇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프로그램 구성:

1년차

설교
[Preaching]

2년차

영성 형성
[Spiritual Formation]

3년차

리더십
[Leadership]

- 신입생 모집 -

올해로 개교 114주년을 맞이한 바이올라 대학교 소속 탈봇신학교에서 2023년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을 새롭게 런칭합니다.

원서접수 2022년 11월 1일 마감

지원자격

- 정규 인가 받은 신학대학원에서 취득한 석사 학위 (신학석사ThM, 목회학석사MDiv, 문학석사MA)
- 졸업 평점평균 3.0 이상 (4.0 기준)
- 목회경력: 3년 이상의 목회 경력이 있는 자 (부목사 지원 가능)

수업기간

- 1년차 : 2023년 5월 29일 - 6월 9일 (2주)
- 2년차 : 2024년 5월 27일 - 6월 7일 (2주)
- 3년차 : 2025년 6월 2일 - 6월 13일 (2주)

수업장소 미국 캘리포니아 탈봇신학교 캠퍼스

입학문의: * 한국어 상담 가능

전화: +1 (562) 903 4705 (미국)

웹사이트: <https://www.biola.edu/doctor-of-ministry-korean-track>

이메일: talbot.korean.dmin@biola.edu

카카오톡 채널: "탈봇" 검색

유튜브: "탈봇신학교" 검색

교수진

클린턴 아놀드 교수
Dr. Clint E. Arnold

도널드 스누키안 교수
Dr. Don Sunukjian

줄리어스 김
Julius Kim

김한오 목사
Bryan Kim

강준민 목사
Choon-Min Kang

권혁빈 목사
Hyuk Been Kwon

존 코 교수
Dr. John Coe

에디 번 교수
Dr. Eddie Byun

권준 목사
James Kwon

이규현 목사
Gyu Hyun Lee

초청 강사진

감리회 제35회 총회, NCCCK·WCC 탈퇴 놓고 논쟁

10월 27-28일 서울 강남구 광림교회(담임 김정석 목사)에서 열린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 이철 목사) 제35회 총회에서, NCCCK(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WCC(세계교회협의회) 탈퇴 문제를 두고 격론이 펼쳐졌다.

그러나 최근 감리회 총회마다 상정이 시도됐던 NCCCK 탈퇴 안건은 이번에도 토론만 오갔을 뿐 이번에도 표결로 이어지진 못했다. 총회는 감독회장 제안으로 차기 임법의 회에서 신학적 논의를 거쳐 다루기로 했다.

28일 총회에서는 NCCCK 잔류 측과 탈퇴 측 간 토론이 오갔다. 탈퇴 측은 동성애와 동성혼 합법화를 인정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NCCCK가 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탈퇴를 주장한 회원들은 “NCCCK 총무를 비롯한 지도자들이 차별금지법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은 성도들 모두가 아는 사실”, “NCCCK 인권상 수상작이 게이 영화 <친구사이> 아니냐”, “감리교회가 그런 문제에 분명하다면, 탈퇴를 결의하고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가입하면 된다”

반면 NCCCK 100주년기념사업위원장 김학



‘이동환 목사 OUT’을 촉구하는 감리회 청년들.

중 목사(꿈의교회)는 NCCCK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찬성이 “가짜뉴스”라며 “NCCCK는 결코 차별금지법 독소조항을 가결한 적이 없다. 동성애 문제 등 NCCCK가 성경적 가치를 위반한다면 은몸으로 막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NCCCK는 인권센터 등 명의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를 여러 차례 촉구한 바

있어, 김 목사의 ‘가짜뉴스’ 발언은 가짜뉴스에 가까우며, “독소조항을 가결한 적 없다”는 주장은 본질을 흐리는 주장이다. NCCCK 이홍정 총무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한 적은 있어도, 제정에 반대한 적은 없다. 감리회는 교리와장정에서 동성애를 금하고 있다.

WCC 탈퇴 주장도 제기됐다. 탈퇴 측은

“WCC는 세계교회협의회가 아니라 세계종교협의회가 되고 있다”, “교회협의회라면 몰라도, 종교협의회가 하는 일치운동에는 동의할 수 없다”, “이들의 비전은 기독교 정신과는 전혀 다르니, 회개하는 마음으로 탈퇴해야 한다” 등 발언을 이어갔다.

반면 WCC 잔류 측은 “WCC가 비신앙적인 행태를 한 것을 인정하지만, 탈퇴보다 우리가 변화시키자”, “총회에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은 교리와장정 위반” 등의 발언으로 맞섰다.

이에 이철 감독회장은 “미국 UMC(연합감리교회)도 (동성애 문제로) 소수의 감독들에 의해 (GMC 창립 등으로) 나눠졌다”며 “건의안을 상정해 찬반에 붙이면 교회가 나눠질 수 있다. NCCCK 탈퇴 여부는 아직 정리가 덜 됐으니, 내년 임법의회에서 양측이 신학적인 정리를 할 수 있도록 맡겨달라”고 정리했다.

이 외에도 총회에서는 교회연합사업연구위원회가 상정한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악법에 대해 타교단과 연합할 것’ 안건이 표결 끝에 통과됐다. 참석 회원들은 ‘악법’ 용어를 두고 대립하기도 했다.

이대웅 기자

“北 도발 야욕 분쇄할만한 대비 철저히 해야”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 이하 언론회)가 최근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는 논평을 4일 발표했다.

언론회는 이 논평에서 “북한이 광분적으로 대한민국을 향한 침략과 도발의 의지를 연일 보여주고 있다. 지난 2일에는 울릉도를 겨냥해, 최초로 NLL(북방한계선)을 넘어 남쪽을 향하여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현 정부 들어서 15차례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지만 대한민국을 직접 노려서 발사하기는 처음이다. 이로 인해 울릉도에서는 주민들에게 공습경보와 대피령이 내려지는 등 매우 불안한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했다.

이어 “뿐만이 아니라 3일 아침에는 한반도를 넘어 미국 본토까지 도발할 수 있는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형태의 미사일을 발사하고, 연이어 밤에는 SRBM(단거리탄도미사일) 형태의 미사일을 발사해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도발 의지를 여실히 드러내었다”고 했다.

이들은 “또 어이가 없는 것은 북한 주민은 만성적으로 굶주림에 시달리는데, 북한 당국이 불과 며칠 사이에 쏟아낸 미사일 발사 비용이 1,000억 원을 상회한다니 기가 막힌 노릇”이라고 했다.

언론회는 “북한의 도를 넘는 도발은 한미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스톰’을 시행하는 것을 빌미로 하고 있는데, 이 훈련은 방어적 훈련이며 유사시 우리의 안보를 보장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한미 간에 꼭 필요한 훈련”이라며 “북한은 세계인들의 한반도 비핵화 의지에 동의한다고 해 놓고, 지금까지 그 약속을 반복적으로 어겼다”



한국교회언론회 대표 이억주 목사

고 했다.

이들은 “북한은 앞에서 ‘평화 운운’ 하지만 뒤에서는 끊임없이 미사일 개발과 발사로 인한 도발, 핵 개발과 핵실험을 하면서 세계와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일들을 스스럼없이 해 왔다”며 “그런데 어찌 한미

간에 손을 놓고서 저들의 만행을 두고만 보고 있으라는 것인가”라고 했다.

언론회는 “우리 정부는 북한의 대한민국에 대한 도발 야욕을 분쇄할만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권도 여야를 막론하고 국가의 안보 상황에 대해 하나 된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북한의 군사 도발과 남침 적화 야욕을 막는 길은 월등한 힘과 방어 의지로써, 저들의 침략을 사전에 확실히 꺾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 국민들도 이태원 사고로 수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어, 국가 애도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토를 향하여 도발하고, 온갖 무기로 무력시위와 위협을 가하고 있는 북한의 저의를 보았으니, 이에 대한 정신적 무장을 확고히 해야 한다”고 했다.

언론회는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더 한층 국가의 안위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이며, 이 땅에 평화적이고 영구적인 통일이 이뤄지도록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며 “평화와 자유는 이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자”고 했다.

김진영 기자

탈북자 대북송금 비율 감소에도 연 송금액은 증가

북한이탈주민 경제사회통합 실태조사는 국내 최초로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 동향을 정기적으로 조사·분석해 온 기초조사 결과물로, 2005년부터 매년 조사를 실시해 북한이탈주민의 고용동향과 경제활동 실태 및 변화 추이를 제공하고 있다.

2022년 북한이탈주민 경제사회통합 실태조사는 지난 9월 19일부터 10월 2일 사이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 조사 패널단’ 284명(71.2%)과 신규 유입 북한이탈주민 115명(28.8%) 총 399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 방식으로 실시됐다(신뢰도 95%, 오차율 ±5%).

조사 결과, 북한이탈주민 조사 대상자 399명 중 71명(17.8%)만이 ‘2022년 대북송금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올해 평균 1.51회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북송금 경험자 비율은 작년 대비 3.1%p 감소한 수치다.

또한 올해 대북송금 경험자들의 1회 평균 송금액은 409만 원이었으며, 연간 총 송금액은 2억8,110만 원으로 이는 지난해 추정 총 송금액 2억4,520만 원보다 3,590만원 가량 증가한 값이다. 대북송금 경험자 비율 감소에도 불구하고 연간 총 송금액은 오히려 증가한 것.

이와 함께 조사 대상자 399명 중 87명(21.8%)은 ‘2022년 재북 가족 혹은 친척, 친구 등과 연락을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주로 안부 묻기(30.4%), 대북송금 요구 및 전달 여부 확인(51.2%), 기타(10.4%) 등이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특히 기타 응답내용이 재북 거주자의 송금요청으로 확인되어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국경폐쇄 등 북한 내 경제적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조사 대상자 399명 중 경제활동인구는 276명(69.2%)이었으며, 이들 중 실업자는 12명으로 올해 북한이탈주민 실업률은 4.3%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북한이탈주민 실업률 2.9% 대비 1.4%p 증가한 값으로, 올해 일반 국민 실업률 2.4%보다 1.9%p 높은 수치다.

북한이탈주민 취업자 264명(97.0%) 중 임금근로자(상용+임시+일용) 262명의 평균 임금은 2,036,600원으로, 이는 일반 국민 임금근로자 평균임금 2,734,000원(통계청 2021년 8월 발표 기준)의 74.4% 수준에 해당한다.

김진영 기자

CDTV 미주기독교일보

YouTube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양한 기독교정보
기독교일보 유튜브



미주 디아스포라 예배자를 세우기 위한 연합

라이브 워십 집회

DEC 03 · 토 7PM

@남가주동신교회 본당

MARKERS WORSHIP
마커스워십
인도자 소진영
X
원하트워십
ONEHEART WORSHIP

인도자 소진영 소개

마커스워십 예배 인도자 & 싱어송라이터, 동덕여자대학교 실용음악과 졸업, 주내침교회 찬양사

대표곡

소진영 1집 | 마커스워십 2016 ~ 2019
마커스워십 스튜디오 (2021) | Go with the Lord (2022)

주요 앨범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 오직 예수뿐이네 |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 주 은혜임을 | 주는 완전합니다 등

(티켓 \$20)



ONEHEART MINISTRY x MW

동역 | GBC, 기독교일보, 남가주동신교회, ANC 은누리교회, 리노한인장로교회, 산호세세누리교회

213,347,5080 | myoneheartministry@gmail.com
oneheart-usa.com

*후원수익금은 미주 디아스포라 예배 인도자들을 세우는데 사용됩니다.

티켓구매 링크

미 테네시 대형교회, 동성애 문제로 UMC 탈퇴 결정

테네시-서부 캔터키 연회, 올해만 60개 교회 떠나

미국 연합감리교회(UMC) 테네시주의 대형교회가 회중 투표를 통해 교단을 떠나기로 결정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보도했다.

주일 예배에 6백여 명의 교인이 출석하는 멤피스 크라이스트 감리교회는 지난달 30일 교단 탈퇴에 관한 찬반 투표에서 찬성 941명, 반대 101명, 기권 1명으로 탈퇴 의사를 굳혔다.

이 교회의 커뮤니케이션 담당자인 마일즈 스티븐스는 CP에 이번 투표가 “UMC 내 회원 교회들 사이에 확고하게 유지되었으나 정반대의 신념과 조화시키려는 십수 년의 노력이 실패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연합감리교회에서 탈퇴하는 것이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를 삼고자 하는 크라이스트교회가 나아가야 할 최선의 길이라고

믿는다”라며 다른 감리교 교단에 가입할지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공식적인 탈퇴는 2023년 5월 지역 연회의 승인을 거쳐 마무리된다.

스티븐스는 “탈퇴가 승인될 때까지 교회 지도자들로 팀을 구성해, 교회가 교파 또는 비교파 소속으로 남을지 향후 방향을 모색할 것”이라 밝혔다.

크라이스트교회는 올해 초 테네시와 멤피스 연회가 합병한 UMC 테네시-서부 캔터키 연회에 속해 있다. 연회 대변인은 크라이스트교회를 “멤피스의 대표 교회”라고 언급한 빌 맥엘리 주교의 성명문을 CP에 전달했다.

맥엘리 주교는 성명에서 “회중이 연합 감리교회 가족을 언제든 떠나기로 선택하기로 한 그들의 결정에 슬프다”라며 “연합 감리교 신학에 대한 많은 잘못된 설명이 존재하고 있으며,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 거짓말을 입히려는 또 다른 연합감리교회 회중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테네시-서부 캔터키 연회는 올해 6월에도



미국 테네시주의 멤피스 크라이스트 감리교회. ©멤피스 크라이스트 감리교회 제공

60개 교회의 탈퇴 요청을 승인한 바 있다. 지난달에는 북텍사스 연회에서 가장 큰 교회 중 하나인 프라노 세인트앤드류 연합감리교회가 회중 투표 없이 교단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이 교회는 CP에 보낸 성명에서 “세인트앤드류의 결정은 회중의 투표 없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관할 법률 문서에 따라 내려졌다”면서 “이 결정의 법률적 집행의 가능성을 지

지하며, 교인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했다.

UMC의 공식 장정에 따르면, 동성애는 “기독교의 가르침과 양립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UMC는 2019년 특별 총회에서 공식 장정을 통과시켜 동성 결혼 주례와 ‘독신’이 아닌 동성애자에 대한 목사 안수를 금지했다.

그럼에도 교단 내 진보 진영은 공식에 불복하며 동성혼 주례와 동성애자 안수를 강행해 보수 교회들의 반발을 샀다. 결국 올해 5월, 전통적 교단 입장을 옹호하는 교회들이 대거 UMC를 떠나 새 보수 교단인 세계감리교회(GMC)를 출범했다.

한편, GMC 노스캐롤라이나 연회 창립위원 제리 루이스 목사는 지난달 캐롤라이나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UMC 소속 교회 226곳이 노스캐롤라이나 연회를 떠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180개 교회가 올해 이미 탈퇴에 투표했으며, 80여 개 교회가 내년에 UMC를 떠날 수 있다고 GMC 측에 알렸다”고 전했다. 김유진 기자

“美에 문화적 마르크스주의 침투... 기독교인 침묵 말라”

에릭 메탁사스, 신간 ‘미국교회에 보내는 편지’ 서 경고

미국 라디오 진행자이자 작가인 에릭 메탁사스(Eric Metaxas)가 “미국이 위험한 문화적 전환점에 빠르게 접근하고 있다”며 “너무 늦기 전에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메탁사스 작가는 자신의 신간 ‘미국교회에 보내는 편지’(Letter to the American Church)에서 오늘날의 미국과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독일 사이의 유사점을 언급했다.

메탁사스 작가는 CBN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저는 정치적 이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 문제들에 대한 미국교회의 침묵이라고 할 수 있다. 1930년대 초반 독일 기독교인들의 침묵과 직접적으로 평행을 이루는 것이 바로 그 침묵이며, 교회를 짓밟았던 그 문화는 나치가 장악한 마귀적인 악으로 이어졌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아니다. 그러나 교회는 나치가 완전히 장악하고 정말로 악한 일을 행할 만큼 충분히 주저하고 침묵을 지켰다. 우리는 뒤를 돌아보면서 ‘글쎄,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내가 이 책에서 말하고자



에릭 메탁사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

하는 바는, 미국교회의 침묵 때문에 오늘날에도 똑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오늘날 문화적 마르크스주의가 미국 사회에 침투하고 있다”며 “학교에서의 성 전환주의가 기독교 박해와 동일한 좌파 사상을 발전시키고 있다. 변화를 만들기 위해 침묵을 깨는 것에는 용기와 끈기가 필요하다”고 했다.

약 200년 전 기독교 정치인인 윌리엄 윌버포

스(William Wilberforce)는 대영제국 전역에서 노예 제도를 종식시키기 위해 싸웠다.

메탁사스 작가는 “그는 그것(노예제도)이 사탄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기독교인인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할 정도로 정치적이었다. 그러나 사람들이 ‘당신은 정치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그는 ‘아니다. 난 그저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명령하신 일을 하고 있을 뿐이다. 목소리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되어 달라. 아프리카 노예들은 목소리가 없다. 내가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그는 “오늘 태어나지 않은 이들을 위해 말하지 않으면, 내가 사회주의와 마르크스주의, 그리고 우리나라에 다가오는 전체주의에 반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당신도 알다시피 미국에 들어오는 중국 공산주의 사상이다. 사실은 분회파와 윌버포스 모두 ‘조용히 하고, 믿음을 비공개로 유지하고, 복음(만)을 전하고 복음 관련 문제에 충실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그는 자신의 책에서 기독교인들이 윌버포스의 모범을 따라야 한다. 그는 “주님을 위해 무슨 일을 하길 원하는가? 그렇지만 일단 무엇이든 하라.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하라”고 권면했다.

그러면서 “그렇다. 학교 이사회에 출마해

야 한다. 그렇다. 아이들을 공립학교에서 내보내고 홈스쿨링을 해야 한다. 그렇다. 큰 국가에서 박해를 받는 이들을 돕기 위해 자기 희생적인 수표를 작성해야 한다”고 했다.

메탁사스 작가는 “난 어느 날 갑자기 유튜브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왜냐하면 (이 사회에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할 것들을 내가 감히 이야기했기 때문이다. 여기는 미국이다. 여기는 미국이다. 무엇이든 자유롭게 이야기할 자유를 위해 사람들이 목숨을 버린 나라다. 그러나 이 나라에 냉기가 내려왔고, 교회는 침묵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침묵을 옹호하고, 우리는 정치적이지 않다고 옹호하는 목소리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른 많은 이들과처럼 미국 기독교인들도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드는 것과 지배적인 문화에 의해 취소되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러나 너무 늦기 전에 용기를 갖고 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가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의 침묵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침묵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전쟁터로 부르신다. 그리고 교회가 이것을 이해하고 말한다면, 독일에 닦았던 공포를 우리는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일을 계속해야 한다. 정확히 그곳에서 일어났던 일이 이곳에서 일어날 것이다. 시간은 매우 짧다”고 했다. 강혜진 기자

목회자 청빙위원회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을 겪는 10가지 이유

미국의 교회 성장 전문가인 톰 레이너(Thom S. Rainer) 박사가 최근 웹사이트 ‘처치앤서즈’(churchanswers)에 ‘목회자 청빙위원회가 그 어느 때보다 고군분투하는 이유 10가지’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다음은 주요 내용.

1. 청빙위원회는 1980년처럼 찾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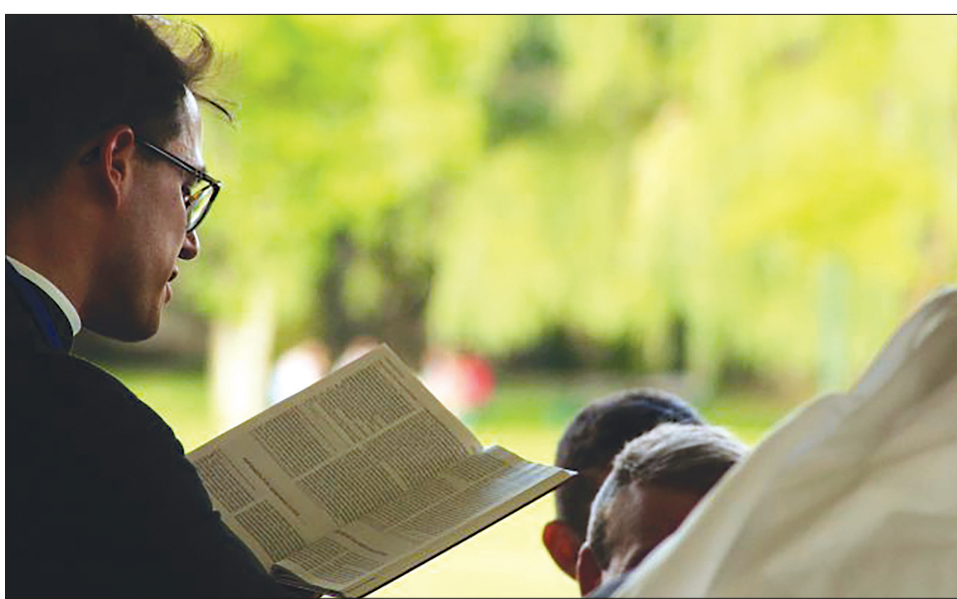
그들은 여러 출처에서 이력서를 수집한다. 교회가 교단의 일부인 경우 해당 교단에서 이력서를 구한다. 청빙위원회 구성원들은 책임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력서를 열심히 검토한다. 후보자에게 연락하면 대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그들은 후보자에게 계속 매달린다. 실패로 가는 과정이다.

2. 목사를 찾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

그들은 보통 매주 또는 그보다 덜 자주 만난다. 그들은 청빙위원회 구성원에게 일정수의 이력서를 할당한다. 그들은 혼란과 지연을 추가하는 한 번에 여러 후보자를 처리한다. 유력한 후보자를 찾는 과정은 6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 결정되지 않으면 다시 시작된다.

3. 교회는 헤드헌팅 회사(search firm) 이용을 꺼린다.

헤드헌팅 회사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다. 회사는 여러분을 위해 목회자를 선택하지 않는다. 교회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이름을 제공한다.



©Pixabay

4. 많은 청빙위원회에서 같은 프로필을 가진 목회자를 찾고 있다.

교회를 옮기려는 목회자라면 35세에서 49세 사이이고, 최소 15년의 경력이 있고, 완벽한 가정이 있다면 좋은 위치에 있다. 다른 후보자는 지원할 필요가 없다.

5. 일부 청빙위원회는 이전 목사가 가졌던 문제를 과도하게 수정하려고 한다.

전임 목사가 ‘너무 선교적’이고 목회적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면 위원회는 교인들의 목회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99%를 할

애하는 새 목사를 찾을 수 있다. 물론 교회는 외부 전도 지도력이 없기 때문에 쇠퇴할 것이다.

6. 일부 청빙위원회는 전임 목사의 복제품을 찾는다.

이 경로는 앞에 언급한 예보다 덜 일반적이다. 전임목사가 재임기간이 길거나, 창립목사이거나, 목사가 사망한 경우 발생할 수 있다.

7. 교회는 후임 목사가 묘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후임 목사에게 가장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기대는 교회가 더 젊어질 것이라는 기대다.(모든 교회가 35세에서 49세 사이의 목사를 원하는 이유 중 하나다).

8. 교회가 신임목사에게 무리한 기대를 갖고 있다.

일부 청빙위원회는 묘책 외에도 성직자와 죄없는 사람 사이 그 어딘가에 있는 목사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다.

9. 2019년은 일반적으로 교회와 특히 목회자 청빙위원회에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해가 되었다.

2019년 이후로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그러나 많은 교회들은 전염병 이전의 마지막 해를 그리움과 향수로 바라보고 있다. 대부분의 교회는 2019년이 실제로 어땠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관심이 없지만 그 해로 돌아가기를 갈망한다. 따라서 청빙위원회는 출석, 프로그램 및 새 신자 숫자를 전염병 이전 수준으로 되돌릴 수 있는 목사를 찾는다.

10. 많은 교회들이 전임목사를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최근 1년 넘게 청빙을 진행하지 못한 위원회를 만났다. 목회자 보상에 대해 물었다. 그들이 제시한 금액은 4인 가족 빈곤선(poverty line) 이하였다. 게다가 아무런 혜택도 주지 않았다.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라고 답하자 한 조사위원은 사모가 일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회는 이 문제에 대해 현실적이어야 한다. 강혜진 기자



www.openstewardship.com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세상이 열리기를 *smile*

행복한 상상

오픈청지기재단에서 사랑과 나눔을 함께 할
2022년 오픈청지기 프로그램 수혜 단체를 찾습니다!

한인사회를 비롯해 지역 커뮤니티에서 봉사하는 비영리 단체들이 운영중인
현 프로그램 활성화와 확장을 Open Stewardship Foundation에서 지원해 드립니다.
오픈청지기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건강과 복지향상에 기여해 주실
비영리 봉사단체들은 지금 바로 신청해주세요!

신청서 다운로드와 자격요건 및 지원금 등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openstewardship.com



오픈청지기 프로그램 지원단체 모집 요강

신청기간

2022년 10월 17일 - 2022년 11월 23일

수혜단체 발표

2023년 02월 28일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류 보내실 곳

Open Stewardship Foundation
1000 Wilshire Blvd., #500
Los Angeles, CA 90017



서류 접수는 우편으로만 가능하며, 지원금 수혜단체는 웹사이트,
신문광고, 안내우편을 통해 발표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사랑과 나눔의 정신을 온 세상에 전하는 -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LA, 동부 지역

고태형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com

김성식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영혼의샘 내적치유 영성집회 오후 7:30(월, 수, 금)

LA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 (213) 674-7966, (213)245-6616

김기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내셔널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20(월-토)
3부예배(차세대예배) 오전 11:30 오전 6:20(토)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수요일기도모임(수) 오후 7:30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이만2세를 협력하며, 이만2세를 치유하며, 선교명령을 순종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 & Eden 코너)
T. (213)386-2233

씨니킴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성경예배 오후 7:00
아침말씀예배 월-토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323) 833-9090

최순환 담임목사
Rain down 주일예배 오후 1:00
Heart of David 금요일예배 오후 8:00
Lighter 전도 (매일 마지막주 금요일)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군대

24325 Crenshaw Blvd, #241, Torrance, CA 90505
T. (310) 905-2228 / newchurchdtla.com

한천영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연합예배 오전 6:20

갈릴리산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 (323) 735-6412 / gmcchurch.com

진유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영성예배)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박은성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 (323) 227-1400 web@youngnak.com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중교동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50 유초등부/유저부 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예배 오전 10:5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나성한미교회
부르심에 응답하고 보내심에 반응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성교를 세움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EM(Holy War) 오전 10:00 오전 6:30(토)

우영화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590-3722 www.eaststarang.org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강지원 담임목사

새 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과 전도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 90006
T. (323) 702-6709

1부예배 오전 7:45 중교동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35 수요일말씀강해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라디오 방송설교
수요일예배: 저녁 7시 라디오서울 AM 1560
매일 오전기도회: 9-11시 주일 아침 6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서사라 담임목사

주님의 사랑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 (323) 897-5751
lordslovechristianchurch@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라티노 오후 6:30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 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성기도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30(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 소, 친, 초 정신의 흐름, 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청)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양기도회 오후 8:0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30(토)
중고등부 오전 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321-4433

주일예배 오전 11:00
목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이순환 담임목사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366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EM예배 오전 11:00 EM성경공부 오후 7:00(금)
유초등부 오전 10:30 금요일기도회(마침막) 오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a@hnsa.org

글렌데일, LA 북부 지역

주일 1부 오전 9:00 JCOE Academy
주일 2부 오전 12:30 오전 10:15, 오후 12:40
EM 오전 11:15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사별부 오전 8:45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김경진 담임목사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밭에 동이요 내 길에 빛이이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 1부 오전 8:00 중교동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어청년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5:3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주일학교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중교동, 대학부 오전 11:00
수요성경학교 오후 7:30 새벽예배 화-토 새벽 6:00

안정섭 담임목사

밸리연합감리교회

10408 Balboa Blvd. Granada Hills, CA 91344
T. (818) 366-0089 / www.vkumc.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국제 인권 옹호자들 “美 정부, 북한인권특사 임명 시급”



2019년 제16회 북한자유주간 일정 중 워싱턴DC 헤리티지 재단에서 주최한 북한인권 토론회에서 로버트 킹(Robert King) 전 미국 북한인권대사가 발언하고 있다. ©기독교일보

미국 정부에 북한인권특사를 조속히 임명할 것과 중국의 탈북민 강제 송환을 저지하라는 인권 단체들의 목소리가 나왔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27일 미국 정부 산하 독립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가 주최한 ‘북한 내 종교 혹은 신념의 자유와 미 외교 정책에 대한 제언’에 관한 청문회에서 이런 요청이 이어졌다고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로버트 킹 전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해 “북한 상황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 과거보다 훨씬 어려워졌다”며 “유엔 인권 활동에 대한 미국의 참여를 강화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강조되고 집중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킹 전 특사는 다른 주목할 분야로 “북한 인권과 종교 자유를 장려하는 데 관여하는 데 적극 참여하고 있는 한국 정부를 지원하는 일”이라며 “미국은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하고, 북한의 인도주의적 노력을 장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 매체는 인권 문제와 관련해, 킹 전 특사가 “북한과 인권 문제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대안이 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정보가 북한에 전달돼 주

민들이 나라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VOA는 영국 민간단체 ‘코리아 퓨처(Korea Future)’가 북한인권특사 임명을 촉구한 발언도 함께 실었다.

셜리 이 코리아 퓨처 자문위원은 특사 임명이 “북한 노동당과 김일성 및 김정일주의를 옹호하는 당의 임무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해시키고 폭로해야 한다”고 했다.

이 단체의 황인제 조사관도 “김일성 및 김정일주의에 대한 이해는 추종자들에게 타 종교나 신앙을 거부하게 할 뿐만 아니라, 북한 사회의 다른 종교나 신앙을 박해하거나 파괴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아브라함 쿠퍼 USCIRF 부위원장은 중국 정부에 탈북민 강제 송환을 중단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쿠퍼 부위원장은 “중국 정부가 탈북자 강제 송환 정책을 고수해 특히 기독교와 관련된 탈북자들이 심각한 박해의 위험에 놓이게 됐다”면서 “중국의 공모가 북한의 종교적 자유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강조했다.

김유진 기자

美 동유럽 기독교단체, 북마케도니아에 성경 22만 5천권 기증



올해 동유럽 선교단(EEC)에서 전달한 성경을 읽는 북마케도니아 어린이들. ©동유럽 미션스(EEC) 제공

과거 소비에트 연방(소련) 국가에 성경을 밀반입한 선교 단체가 북마케도니아에 모국어로 된 어린이 성경 22만 5천 권을 기증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에 본부를 둔 동유럽 선교단(Eastern European Missions, EEM)은 1961년 설립된 이래로 무료 성경을 출판하여 동유럽과 주변 국가의 청소년 캠프, 학교, 난민센터 등에 보급하고 있다.

이 단체는 소그룹의 선교사들이 소련에 성경을 몰래 들여오는 데서 시작하여, 직접적인 반입이 불가능한 지역까지 성경 보급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바트 라빈스키 EEM 유럽 사업부 부사장에 따르면, EEM은 성경 출판권을 위해 성서공회에 협조를 구했으며, 북마케도니아 성서공회가 현지 정부 및 정교회와의 연대를 성사시켰다. 지금은 EEM이 어린이 성경 모금 캠페인을 주최하여 조달했다.

EEM은 지난해 크로아티아의 공립학교에 9대의 트럭을 동원해 65만 권의 성경을 기증한 바 있다.

EEM 회장인 밥 버클은 CP와의 인터뷰에서 “활동 초기만 해도, 1년에 수백에서 수천 권의 성경만 보급해도 행운일 거라 생각했지만 최근 수년간 성장해왔다”면서 “작년에는 30여 개 국가에 20개 이상의 언어로 된 성경 150만 권을 보급했

다”고 밝혔다. 버클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심고 있는 씨앗이며, 이 일을 위해 여러 다른 단체들과 팀을 이뤄 협력한다”고 했다.

또 그는 활동 자금 대부분이 개인과 교회의 후원으로부터 나온다고 “현재 미국에서 최소 1082개의 교회가 이 단체의 선교를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7월 EEM은 북마케도니아 정부 산하 종교관련부에 성경을 전달한 이래로 현지 교회와 개인에게 성경을 배포하기 시작했다. 버클에 따르면, 북마케도니아 지도자들은 내년에도 22만 5천 권의 성경을 추가로 전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북마케도니아는 1990년대 초 유고슬라비아가 붕괴되자, 1991년 마케도니아 공화국의 독립을 선언했다. 라빈스키 부사장은 북마케도니아가 “수년 동안 그리스와 국가명을 두고 갈등이 있었다. 또 올해 (국가) 자체가 국가 정교회로 인정받는 문제로 세르비아 정교회와 갈등을 겪었다”라며 “불가리아와는 문화와 역사적 이견이 있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긍정적인 영향이 부족한 탓에 정부와 교회 지도자들은 아이들이 모국어로 된 성경을 성경을 갖는 것의 이점을 알게 됐다”며 “그것은 성경 그 이상이다. 모국어로 된 성경이자 그들에게 매우 값진 의미”라고 전했다.

김유진 기자

시진핑의 또 다른 5년, 中 교회에 끼칠 영향은?

영국&아일랜드 오픈도어는 최근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시진핑의 또 다른 5년, 中 기독교인들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 것인가?”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다.

오픈도어는 칼럼에서 “기독교가 합법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이 서서히 줄어들고 있다”면서도 “이것이 반드시 중국에서 기독교 성장의 역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다음은 해당 칼럼의 주요 내용이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공산당 서기장이 5년 더 임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은 집권한 지 10년이 넘었으며, 은퇴할 때까지 사실상 ‘평생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평론가들은 시진핑이 수천만 명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악명 높은 마오쩌둥(毛澤堂) 이후 가장 강력한 권력을 쥐고 있다고 말한다.

시진핑의 통치는 마오(마오쩌둥)의 야만적인 통치와는 거리가 멀지만, 두 사람은 공통점이 많고 특히 종교에 대한 강한 혐오감을 갖고 있다. 그리고 특히 지난 몇 년간 약 1억 명의 중국 기독교인들은 이미 제한된 자유가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느껴 왔다.

중국 남서부에서 사역하는 노엘(Noel) 목사는 “현재 상황에서 가정교회에 대한 통제가 점점 더 엄격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노엘 목사는 “많은 가정교회들이 공개적으로 모이고 만날 기회가 없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상황이 악화되고 있고, 가정교회들은 운영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오픈도어의 아시아 박해 분석가인 토마스 윌러는 “중국 공산당은 중국과 중국 시민들을 통제하는 데 점점 편집증을 갖고 있다. 보안과 통제의 렌즈를 통해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을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이어 “그들이 전국적으로 엄격한 코로나19 제한을 시행한 방식에서 이를 볼 수 있다. 종교 공동체는 제한되고, 괴롭힘을 당하거나 심지어는 폐쇄됐다”고 했다.

또 논란의 여지가 있는 ‘코로나 제로’ 규정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부분적으로 시민들의 삶에 대한 통제를 더 확장하기 위한 구실로 간주된다.



중국 북동부 선양에 있는 동광교회에서 한 여성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 ©영국&아일랜드 오픈도어

현재 중국의 종교 자유 현황을 조사하는, 오픈도어 파트너인 수이는 “이런 배경에서 대부분의 교회는 온라인이나 소그룹으로 만나야 한다”고 했다.

그는 “시골에 있는 교회와 같은 일부 교회는 모임을 아예 중단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마을의 지도자들도 집회를 방해할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토마스 윌러는 “코로나19는 공산당에 유용했다. 사회의 여러 부분들은 통제에서 벗어났고 사람들은 다시 만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비공식 가정교회의 기독교인들은 더 이상 만날 수 없었다”고 했다.

중국의 ‘가정교회’는 원래 가정에서 모였다가 교인 수가 수백 또는 수천 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상업 건물로 옮겼으나, 감시와 폐쇄를 피하기 위해 다시 집에서 모이게 됐다.

교회는 또 젊은이들이 주일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라는 지시도 받고 있다. 공식적으로 승인된 삼자운동 교회들조차 주일학교 활동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노엘 목사는 “우리는 통제를 받고 있다. 일부 목회자들은 이미 그 지역을 떠났고, 어떤 지역 목회자는 사역을 포기했다. 때로는 외로움을, 때로는 압박감을 느끼기도 한다”고 했다.

그는 “중국 시민들은 특히 경제 침체와 일자리 부족으로 의미를 찾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공산당도 인정한 사실이다. 그들의 대답은 ‘신앙이 있어야 한다면 중국 고유의 유훈을 함께 가르쳐 지도자에 대한 복종을 강조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김유진 기자

바티칸, 중국과 주교 임명에 대한 잠정 협정 연장

중국이 종교자유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로마가톨릭교회는 주교 임명 관련 잠정 협정을 연장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교황청 공보실은 최근 중국 정부가 주교직 후보자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잠정 협정을 갱신했으며 프란치스코 교황이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고 발표했다.

잠정 협정은 2018년 처음 승인되었고 앞서 2020년 갱신되었으며 이번 협정은 오는 2024년 만료될 예정이다.

교황청 공보실은 “바티칸은... 가톨릭교회 사명과 중국 인민의 선익을 증진하기 위해 협정을 생산적으로 이행하고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중국 정부를 존중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계속할 것을 약속한다”라고 밝혔다.

피에트로 파롤린(Pietro Parolin) 국무원장 추기경은 바티칸뉴스와의 인터뷰에서 “2년 연장은 주로 중국 교회의 일상 생활에 필수적인 측면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프란치스코 교황은 결단력과 끈기 있는 선견지명을 바탕으로 복잡한 상황에서도 중국 가톨릭 공동체에 확신을 줄 수 있다는 구체적인 희망을 가지고 이 길을 계속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여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중국 가톨릭 신자들이 복음선포, 견고한 영성 형성, 즐거운 성찬례 거행으로 구성된 기독교 생활을 고요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을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협정 연장은 최근 몇 년 동안 종교단체

에 대한 정부통제를 강화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재선출되면서 이뤄졌다고 CP는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중국 40개 교구에는 여전히 주교가 없지만 2018년 협정이 발효된 이후 6명의 가톨릭 주교가 서품됐다.

한편, 종교자유 옹호자들과 일부 성직자들은 이 협정을 비판했다.

미국에 기반을 둔 NGO 국제기독교연대(ICC)는 성명을 통해 “교황청이 권위주의 국가에서 활동을 정상화하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 년 동안 중국 가톨릭 지하교회 신자들의 종교자유는 개선되지 않았다”고 경고했다.

이어 “많은 실종된 성직자가 돌아오지 않은 반면, 바티칸에 충성하는 성직자들은 끊임없이 위협에 직면하고 때로는 공식 교회에 합류하기 위해 복종한다는 이유로 ‘재교육’을 받기도 한다”라고 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은 2020년 9월 협정이 처음 채택된 지 2년 만에 중국 가톨릭 신자들의 종교 자유 조건이 악화됐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당시 트위터에 “바티칸이 협정을 갱신한다면 그 도덕적 권위를 위협에 빠뜨릴 것”이라고 말했다.

CP는 바티칸과 중국 정부 간 합의를 비판하는 인사들 중 홍콩 주교였던 주셴 추기경이 있다고 전했다. WSJ에 따르면 5월 열린 기도 모임에서 쟈 추기경은 “바티칸은 선의로 행동했지만 현명하지 못한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1부 예배 오전 8:30 EM 예배 (1부) 오전 9:00 **오명찬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1:00 EM 예배 (2부) 오전 11:00
금요성경회 오후 7:30 한여 청년부 주일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곽덕근 담임목사**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OC 예배 주일예배 오후 1: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OC 예배 오후 3:30
주일 3부 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오후 7:30
금요성경회 저녁 7:45 새벽기도회 오후 5:30 토 오전 8:00
새벽기도회 오후 5:30 토 오전 6:00 2351 W. Orange Grove Ave., Fullerton, CA 92833
19514 Redd St., Northridge, CA 91321, 818583-9887

주안예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cccla.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민중기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충현선교교회
블러시(Calling), 고지교(Healing), 기르메(Maturing), 맞선대(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F. (818) 549-9199 / choonhyun.org

사우스베이 지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유초등부 오전 11:00 **신태섭 담임목사**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유저부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전 6:00

가디나장로교회
예수의 온전한 재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
1340W Gardena Blvd, Gardena, CA 90247
T. (310) 217-9191 www.gpcloves.com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이호민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3부 EWS 예배 오후 2: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초중등부 예배 오전 8:40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 532-0191

1부예배 오전 8:00 중/고예배 오전 11:00 **김정훈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유아/유저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EM 1부 9:30/2부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송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서보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51-3153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김경환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후 1:00

은혜로교회
세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이종용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주일1부예배 오전 8:00 **김우준 담임목사**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KM찬양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토렌스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침으로 오백이여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 370-5500 / www.torrancegcc.org

주일1부 오전 7:45 수요일예배 오후 7:30 **고창현 담임목사**
주일2부 오전 9:45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30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 2222

오렌지카운티 지역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구봉주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정아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찬양부 오전 9:30, 11:30
한여청년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백정우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20
영아예배(토)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1부예배 오전 8:20 수요일기도회 오후 8:00 **주혁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전 1:30 오전 6:00(토)

주님의빛교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 252-9191 / www.lordlight.org

1부예배(EM) 주일 9: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안창훈 담임목사**
2부예배(KM) 주일 11:00am (매일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저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토 6:00am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 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 오전 11:00

다우니제일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00 **림학춘 담임목사**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7:00(수) 제자성서 오전 9:30(금)
청년기도회 오전 9:00(목)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 380-7777 / www.lagunamc.org

1부예배 오전 7:15 성인영아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김한오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15 일별예배 오후 1:30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박신용 담임목사**
2부 오전 9:15 중고등부 오전 11:15
3부 오전 11:30 한여부 오후 1:00
4부 오후 2:00 KM대학원부 오후 2:30

얼바인온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스리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 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5 (매일 마지막 금요일)
3부찬양 오전 11:30 청년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오렌지카운티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한기홍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20 중고등부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3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삼금반교회 세계선교를 미루지 않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 예배 오후 1:30 목요일예배 오후 7시 **안상희 담임목사**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유년부예배: 주일 오전 11:00 월요일: 매일 둘째 및 넷째 금요일
중고등부예배: 주일 오전 11:00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 598-9130 breadhoon@hanmail.net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박신용 담임목사**
2부 오전 9:15 중고등부 오전 11:15
3부 오전 11:30 한여부 오후 1:00
4부 오후 2:00 KM대학원부 오후 2:30

남가주늘사랑교회
Everlove Baptist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1461 W. Orangehorpe Ave, Fullerton, CA 92833
T. (714) 525-0191 / www.ebsccal.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이희철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갯스윌연합교회
여호와를 찾을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ja@gmail.com

성교부흥을 회복하라 #277

“북미주 비전 스쿨 수료식을 참여한 소감”

필자가 섬기는 인터콥 선교회(InterCP International)에서 매 3월과 9월에 각기 9주간씩 북미 전체 50개 지부에서 일시에 평신도 선교 훈련인 '비전 스쿨'이 열린다. 지난 9월에 열린 하반기 비전 스쿨이 9주를 달려와 지난 주 각각 지부마다 수료식을 했다.

9주간 매주 현지 장기 선교사들이 직접 와서 선교 훈련에 필요한 주제를 갖고 강의와 선교 소식을 전하였다. 한국과 세계 선교 역사, 영적 전쟁으로서의 선교, 중보적 기도자, 선교 영성, 이슬람문화 이해, 세계 선교 현황과 전략, 미전도 종족 입양 운동 등의 주제로 전문 선교사들이 풀어내는 선교 강의는 참석자들에게 큰 은혜와 도전을 주기에 충분했다.

이번 비전 스쿨은 한국어권 300여명, 영어와 다민족권 700명 등 1,000명 정도의 수료자를 배출했다. 물론 그들을 섬긴 각 지부의 스텝 및 봉사자들은 수료자들보다 훨씬 많은 동역자들이 헌신하며 섬겼다. 필자는 목회자들의 비전 스쿨 강사로 봉사하였다. 그리고 서부 지역의 몇몇 비전 스쿨 수료식에 참여하여 축사를 전했다. 수료식 순서 중에 훈련생들의 간증 시간이 있다.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렸다. 기쁨과 감격, 그리고 선교 비전에 대한 각오이리라. 간증자들은 자신의 신앙생활의 변곡점이 되었다 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깨달았다고 했다. 알지도 못했던 미전도 종족을 입양하여 그들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것에 기쁨이 넘쳤다고 했다. 고난을 겪는 민족을 위해 진심 기도를 드리게 되었다고 했다.

필자가 참석한 필리핀 교회는 교회 리더십들이 담임목사와 같이 13명이 참석하여 교회의 선교 비전을 바로 잡은 것에 감사하였다. 이제는 한국어권보다 다민족 영어권 비전 스쿨이 압도적으로 더 많아졌다. 한국에서 시작한 선교단체의 비전 스쿨이 국제적 선교단체가 되었고, 이제는 다민족이 참여하는 “글로벌 비전 스쿨”이 되었다. 같은 시기에 북미뿐만 아니라, 한국 전역에서도 그리고 세계 74개국에서 비전 스쿨이 열렸다. 이집트와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북인도, 북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수백 명의 현지인 친구들이 참가하는 비전 스쿨도 여러 곳이



이상훈 목사 주미전선교회 대표

된다. 비전 스쿨은 필자가 경험한 선교 훈련 중 가장 효과적이며, 전문적이고, 실제적으로 열매가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참여하기에 가장 좋은 훈련이라고 확신한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힘을 갖추게 한다.

선교 전문가인 랄프 윈터가 말한 것 같이 하나님의 세계 선교는 모달리티와 소달리티 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모달리티는 지교회들을 중심으로 하는 선교, 소달리티는 선교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선교를 일컫는다. 필자는 성경에서 말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임을 믿는다. 그런 의미로 두 축이 다 교회의 사역이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난 3년여 모달리티 선교 운동이 위축된 반면, 소달리티의 선교 운동은 엄청난 진전을 이루었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 세계 선교 운동을 통한 교회의 확장은 지난 2천 년간 시들지 않고 성장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비록 교회가 핍박당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수없이 순교를 당하는 고난의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는 쉼 없이 전진하였고,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들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장하여 왔다.

비전 스쿨의 꿈이 그것이다. 하나님의 선교에 직접 참여하는 하나님 나라의 용사들을 배출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이루기 위한 선교적 신앙인이 되는 것임을 믿는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죽는 자다. 복음을 전파하고 선포하는 사명을 수행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잠자는 영혼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믿음과 기도로 악한 대적 마귀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 된다.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 열방을 향할 것이다.

고대 아테네에 티몬이라는 부자가 살았습니다. 그는 한때 아테네의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그는 용맹을 떨친 장수였는데 지금은 엄청난 재산을 자랑하는 부자였습니다. 이런 부자 티몬은 인심 좋고 씩씩이 좋은 사람으로 아테네 전 시민의 좋은 친구였습니다.

티몬은 자신의 집에 크고 화려한 연회장을 마련하고 친구들을 초청해 파티를 열었습니다. 푸짐한 음식으로 친구들과 파티를 열기 위해 24명의 요리사를 두었고 하인들도 늘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티몬의 집에는 거의 매일 풍성한 고급 요리가 준비된 파티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손님 대접을 잘하는 티몬은 겸손하고 친절했습니다. 손님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손님들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이런 티몬의 친절을 경험한 사람들은 감격하였습니다. 티몬의 환대와 친절을 목격하거나 들었던 사람들은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티몬이 이렇게 아테네 시민들을 사랑하는 이유가 궁금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에 대한 답을 티몬이 자신의 입으로 말해주었습니다. 티몬은 “사랑은 주는 자가 받게 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사랑과 사람을 믿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티몬을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아무튼, 아테네 시민들은 티몬의 집에 즐기게 찾아 왔습니다. 사람들은 파티와 티몬과의 교제를 즐기며 감동을 하여 티몬에게 다양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시인들은 티몬에게 송시를 지어서 바쳤습니다. 그 송시들을 모은 파일이 두툼했다고 합니다. 또 화가들은 티몬의 초상화를 그려서 티몬에게 주었습니다. 보석상들은 티몬에게 비싼 보석상자들을 바쳤습니다. 티몬은 아테네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듯했습니다. 티몬을 향한 아테네 사람들의 칭송은 대단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티몬에게 박수와 칭송을 보낼 때 티몬의 충직한 집사 플라비우스는 티몬의 험준한 씩씩이에 대해 염려하며 충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티몬을 찾은 모든 사람은 티몬의 재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젊고 용맹스러운 장군 알키비아데스와 걸인 철학자 아페만투스는 예외였습니다. 그들은 티몬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셰익스피어의 “아테네의 티몬”

그런데 티몬의 재산이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마침내 아테네 원로원에서 특별비상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안건은 ‘티몬의 빚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였습니다. 티몬은 시 당국에 큰 빚을 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원로원은 만장일치로 ‘더 이상의 대출은 없다. 그리고 티몬에게 빌려준 돈을 회수하라! 원금이라도 회수하라!’라고 결정합니다.

채무집행관들이 티몬의 집을 덮쳤을 때 티몬은 간밤의 파티로 피곤해서 늦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대신 소식을 접한 집사 플라비우스는 티몬을 깨우고 “우린 파산했습니다!”라며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사연을 들은 티몬은 놀라지도 당황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여유롭게 웃습니다. 마치 목표를 이룬 사람처럼 행복해합니다.

티몬은 차분히 앉아서 뭔가를 씩니다. 그리고 그 메모지를 집사 플라비우스에게 건네며 말합니다. “자 플라비우스! 이 사람들을 찾아 가라! 티몬이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해라! 이 사람들은 나를 도울 수 있게 되어 기뻐하며 나를 도와 줄 것이다. 두고 봐라. 저녁때가 되면 우리는 큰 부자가 될 것이다!” 그들은 티몬과 함께 파티했던 티몬의 친구들이었습니다.

플라비우스는 목록을 받아들이고 그 목록의 1번을 찾아갑니다. 그는 큰 부자였습니다. 그는 티몬의 집사를 보자 “어서 오게 플라비우스! 티몬이 자네를 보냈는가? 그가 선물을 보냈나? 아니 빈손이잖아? 수레를 끌고 왔나?” 너스레를 뜨는 그에게 말합니다. “티몬을 도와주세요! 그는 파산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티몬의 목록 1번이 말합니다. “돈을 빌려 달라요? 내가 이럴 줄 알고 늘 경고했지. 자네도 알잖아? 그렇게 흥청망청 쓰면 망한다고 자주 경고했는데, 내 말을 안 듣더니 결국 이렇게 되었구나.”라고 합니다. 목록에 있는 2번

을 찾았습니다. 똑같이 반갑게 맞아 주던 그도 사연을 알아 5달란트를 주며 힘내라고 전하라고 합니다. 쓸쓸히 찾아간 목록 3번도 사연을 듣고 불편해합니다. 그는 ‘왜 하필 나를 찾아와?’ 하더니 자신이 목록의 세 번째라는 것을 불평합니다. 플라비우스는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분노한 티몬의 거의 실성하여 절규합니다. “내가 도와주었던 사람들은 어디 있느냐?” 외칩니다. 그리고 구경꾼과 자갈로 준비된 마지막 파티를 준비해서 파티참석자들을 조롱하고 아테네를 저주하고 아테네를 떠납니다. 방랑하던 티몬은 아테네 근교 숲에서 손으로 흙을 파다가 금괴를 발견합니다. 어마어마한 금이었습니다. 막대한 금을 소유한 티몬은 아테네에서 추방당했던 알키비아데스 장군에게 금을 주고 아테네를 공격하도록 합니다.

티몬은 방황하는 시절에 얻은 병과 분노로 곧 사망합니다. 그의 무덤에는 다음과 같은 비문으로 비석을 세웁니다. “모두를 증오했던 사람, 여기에 잠들다!” 이야기는 알키비아데스 장군이 아테네를 향해 진격하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이상은 역사상 가장 탁월한 문호로 칭송받는 셰익스피어의 비극 ‘아테네의 티몬’의 줄거리입니다.

셰익스피어는 영국의 여왕이 당시 최고의 식민지였던 인도와 바꾸지 않겠다고 했던 작가입니다. 당시 인도는 영국에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같은 식민지였으니 셰익스피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셰익스피어는 역사상 가장 탁월한 문학가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의 위대함은 예술성과 보편성 때문입니다. 섬세한 인간 심리 묘사와 ‘마법 같은 언어’독자와 청중의 마음을 오래도록 사로잡고 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아테네의 티몬’을 통해 인간의 악함과 인간의 악함에 분노하는 인간의 절규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감사와 사랑을 모르는 인간에 대한 티몬의 절규는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미친 듯이 외쳤던 티몬의 절규와 비슷한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하셨습니다. 그 아픔은 어디 있느냐? 고침을 받은 10명의 한센병 환자 중에 돌아와 감사한 자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감사의 계절에 다시 펼쳐보는 ‘아테네의 티몬’입니다.

2022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Advertisement for the 2022 MJB Christian University Fair, featuring various institutions like Talbot Theological Seminary,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and others, with details on admissions and programs.

강준민 칼럼

흔들리며 피는 꽃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자기 목숨보다 귀한 자녀가 참담하게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아픈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아픔입니다.

저는 매주 목회서신을 씁니다. 그런데 이미 써 놓은 목회서신을 내려놓고 다시 써야 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목회서신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태원 압사 사고의 소식을 듣고 목회서신을 다시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금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목회서신을 한 주간 쉬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때로는 목회서신을 한 주 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쓸 수밖에 없는 것이 제가 견고 있는 목회의 길입니다. 그래서 목회서신을 쓰는 것이 힘들 때는 제 마음을 담아주는 시를 찾곤 합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시가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입니다. 오래전에 읽었던 시지만 제 인생이 흔들릴 때마다 떠오르는 시입니다.

흔들리며 피는 꽃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더라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더라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더라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듯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더라

우리 모두는 흔들리며 피는 꽃과 같습니다. 이번 이태원 압사 사고로 사랑하는 자녀를 잃은 부모님과 가족들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눈물에 젖어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소식을 접하는 우리들의 마음도 흔들리는데 자녀를 잃은 가족은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통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서야 할 것입니다. 흔들리며 피는 꽃처럼, 흔들리며 줄기를 곧게 세우는 꽃나무처럼 더욱 깊이 뿌리를 내리며 굳건히 서야 할 것입니다.

자녀를 잃은 부모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자녀를 잃어버린 아픔을 경험하고, 그 고통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은 자녀를 잃고 눈물짓는 부모님을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상처가 상처를 치료하고, 고통이 고통을 치료하듯이 하나님의 상처와 고통이 자녀를 잃은 부모들을 위로해 주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민자의 삶은 흔들리며 피는 꽃입니다. 낯선 타향에 와서 뿌리를 내리며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듯이, 흔들리지 않고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이민자는 없습니다. 흔들리며, 바람과 비에 젖어가며 핀 꽃잎처럼 우리는 흔들리며, 바람과 비에 젖어가며 아름답게 꽃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흔들린다고 쓰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흔들리면서 오히려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의 거센 비바람에 흔들릴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흔들릴 때마다 낙망치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흔들리는 성도님들을 붙잡고 계십니다. 애타는 마음으로 위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위로가 이태원 압사 사고로 자녀를 잃은 부모님들과 가족들 위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태원 압사 사고로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통스러운 사건입니다. 꿈 많은 청춘들이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 모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너무 큰 충격 앞에 무슨 말로 서로를 위로해야 할지 당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잃은 부모들과 가족들의 마음의 고통을 어루만질 수 있는 언어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인생에서 경험하는 고통 가운데 자녀를 먼저 보내는 부모의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일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자녀를 위해 목숨을 내어놓

구봉주 칼럼

신앙 클래식 3 - 벤자민 슈몰크



구봉주 목사
감사한인교회

자민 슈몰크는 30년 전쟁의 최대의 격전지였던, 프랑스의 살레지아에 있는 한 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교회에는 전쟁으로 인해, 교회 종탑도 없어진 상태였고, 통나무와 흙벽으로 된 예배당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또, 30년 전쟁에서 카톨릭이 승리하였기 때문에 카톨릭의 박해가 심해, 다시 종탑을 세울 수도 없었고, 장례식까지도 허락을 받아야만 치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슈몰크 목사는 주님의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과로로 쓰러지고, 30대 초반에 중풍과 백내장이 올 정도였습니다. 그는 개신교 크리스천들이 사는 주변의 36개 마을 들을 심방할 정도로 목회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덕분에 수많은 개신교 교인들이 목사님 내외분을 칭찬하며 감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슈몰크 목사님에게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이 심방을 다녀오는 길에 목사님의 통나무집에 불이 난 것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달려갔으나, 이미 통나무는 잿더미가 되어 있었고 목사님 부부는 잔해 속에 두 아들이 부둥켜 안은 채 불타 죽어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목사님 부부

는 울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심방을 가지 않았다면, 자녀들이 살았을텐데” 하는 후회와 원망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기도하는 중,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비통했지만, 도리어 원망했던 자신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때, 그가 영감을 받아 쓴 말이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입니다.

- 1.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아멘
2.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아멘
3.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목사님은 목회 기간 동안에 1000여 편이 넘는 찬송시를 작사하였고, 여전히 하나님을 지극히 섬기는 주님의 종으로 목

회를 하였습니다. 이후, 목사님은 여러 차례 더 중풍으로 쓰러지시고, 나중에는 실명에 가까운 지경까지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팡이를 짚고 아내의 부축을 받아 심방과 목회를 하시다가 소천 하셨습니다.

슈몰크 목사님은 오늘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커다란 영적도전과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 도전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지극히 헌신하고 있는가?”와 “우리는 모진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가?”라는 도전입니다. 슈몰크 목사님은 자신의 몸이 닳아 없어지듯 하나님께 헌신하였습니다. 가진 것 다 빼앗겨도, 하나님의 주권을 여전히 신뢰하였습니다. 어쩌면, 슈몰크 목사님은 두 아들이 죽는 순간,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신 주님을 떠올렸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떤 모습입니까? 아파도 예배하고, 힘들어도 섬기고, 고통과 죽음이 다가와도 천국과 영생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있습니까? 적어도 16세기 크리스천들의 신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 카톨릭의 엄청난 박해 가운데,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프랑스 개신교 크리스천 위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독일인 개신교 목회자로서, 프랑스에서 교회를 섬긴 벤자민 슈몰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1618년에서 1648년 사이에는 유럽 전체에 카톨릭과 개신교가 대립하는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듬하여, 30년 전쟁입니다. 이 전쟁을 통하여,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나라는 독일이었습니다. 이 전쟁으로 독일은 엉망진창이 되었고, 흑사병 창궐로 당시 1800만 명이던 독일 인구가 800만 명으로 줄어들 정도였습니다. 이 무렵, 독일 출신 개신교 목사였던 벤

식후 혈당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프로지 골드

당뇨! 당뇨는 근본원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프로지골드



당뇨! 원인 기능 개선제 Gold PRO-Z Premium formulation

오래 기다리셨던 아연보충성분 프로-지골드 드디어 출시! 아연, 크롬 주성분에 홍화씨유와 달맞이꽃 증가추출물(PGG)이 추가된 PRO-Z Gold



- 1 혈당, 정상적인 면역기능 때문에 고민이시면? 프로-지 골드가 삶의 활력을 찾아드립니다! 프로지 골드의 주성분 아연, 미네랄은 정상적인 면역기능 및 세포분열에도 도움을 줍니다.
2 산화아연이 아닙니다! 체내 흡수율이 높은 글루콘산아연(zinc gluconate)이 들어 있습니다.

당뇨병의 원인?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 즉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를 지속할 때를 말합니다. 음식을 섭취 후 혈액으로 들어온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해당 베타세포에서 나오는 인슐린이면 호르몬이 필수입니다. 만약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분비된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당뇨병 치료방법은?

당뇨병은 조절은 할 수 있으나 완치는 불가능하며 단지 당뇨병의 진행을 정지시키고, 동시에 당뇨로 인한 합병증의 발생 및 진전을 예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현재 당뇨 환자들이 주로 복용하는 당뇨 약들은 천연 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 장기 복용 시 심각한 부작용(심장 부종, 신장 부종, 간 독성과 방광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많은 대학의 연구팀들의 연구결과로 드러났습니다. 근육세포의 당 대사와 해당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 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의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 1998: pp39~43 미국 특허 #5,411,748 and #5,997,908

당뇨병 회복의 새로운 메카니즘 '프로지'

프로지는 혈당강화제와는 달리 당뇨의 근본원인(인슐린 저항성 및 해당 베타세포 파괴에 의한 인슐린 분비 기능저하)을 해결하는 메카니즘입니다. 당뇨병의 원인은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면역력이 저하됨으로써 생긴 결과입니다. 아연은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필수 미네랄입니다. 포도당을 세포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인슐린이 하는데 당뇨 환자들은 혈액 속에 여러가지 요인(비만, 과음, 운동부족, 스트레스)에 의해 인슐린 반응도가 낮고 인슐린이 저항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IDE(Insulin Degradation Enzyme)라는 소화효소가 필수적인데 이 소화효소의 주성분이 아연이며, 아연은 해당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저장에 필수적인 아연의 신진대사 활성화를 통한 인슐린수용체의 활성화 및 인슐린 수용체의 생성을 촉진함으로써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 신 합성 물질 '프로지' 는 동물의 전립선에서 추출한 물질(CHP)을 아연에 결합시킴으로써 아연이 일정기간 인체에 머물며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당의 대사를 도와 몸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특별 행사 SALE



진유철 칼럼

하나님의 목적을 붙드는 삶



진 유 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약 이천 년 전 세 차례에 걸쳐 선교여행을 했던 바울은 여러 차례 배를 탔습니다. 당시에는 배가 장거리 이동수단으로는 거의 유일하다시피 했기에 아시아의 여러 지역과 유럽을 선교한 바울은 당연히 배를 많이 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바울이 건넌 많은 바다들 가운데 마지막 여정인 로마 여행길에서 유일하게 배가 지나가는 바다를 기

록하였습니다.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 시에 이르러”(행27:5) 항해사가 기록한 항해일지가 아닌 성경, 사도행전은 의사 누가가 성령의 감동에 의해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기 위해 기록한 책입니다. 어떤 것도 무의미하거나 잘못된 것이 없는 성경에서 왜, 바울이 마지막 항해 여정에서는 길리기아 바다를 건넌다고 기록했습니까?

길리기아는 바울이 태어난 ‘다소’가 있는 고향 땅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땅에서 태어나 이방인들 사이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어울리는 것이 조금도 어색하지 않은 헬라교 유대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지중해 세계의 공용어였던 헬라어를 모국어로 구사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일찍이 로마 시민권을 획득한 부모에게서 태어나, 바울 역시 법적으로는 로마시민으로 보호를 받는 사

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고향인 길리기아 바다를 건너면서 이 모든 것이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였음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만약 바울이 하나님의 목적을 붙들지 않았다면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 그냥 사라지는 인생일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 없이는 많은 배움도, 높은 지위와 권력도, 부와 명예도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열심히 살았어도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람을 위한 삶이요, 교회를 향해서는 포항자요 뱃방자요 핍박자였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하나님의 목적을 붙들고 살았더니 최고의 인생으로 역전되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인은 세계에서 유대인과 같이 오천년의 긴 역사를 가진 특별한 민족으로 마지막 시대에

기름 부어주시는 혈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세계 최강대국 미국에서 전 세계의 공용어인 영어를 구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우리 교회는 세계 최대의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해외 장자교회로 하나님이 세우셔서 마지막 시대에 선교하는 교회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만약 우리가 ‘가든지 보내든지 돕든지’의 사명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붙들고 산다면 바울같이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자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삶을 산다면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과 직장 사업과 학업과 모든 삶에서 내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목적을 붙들고 사는 은혜와 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고

디아스포라 조선족의 역사와 의미 - 한민족 디아스포라의 역사와 사명(6)



김 중 덕 목사
TIS(Trinity In Society) 연구소장

차지한다. 한족이 거주하는 땅은 959만Km2의 중국 땅 가운데 40% 를 차지하고 소수민족이 60%의 면적을 차지한다. 비록 숫자는 적지만, 중국 55개 소수민족은 중국 내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겨진다. 이들이 거주하는 땅에는 풍부한 천연자원이 매장되어 중국 산업화의 요충지이기도 하다. 그 가운데 한 소수민족이 ‘조선족 디아스포라’다. 조선족은 교육열이 높아 중국 내에서 가장 잘 사는 민족으로 알려져 있다.

1991년 중국은 소련 공산당의 붕괴를 보며 위기를 느꼈다. 만약, 중국 55개 소수민족이 독립한다면, 한족은 거주할 땅조차 없어 위기를 겪을 것이다. 이에 중국은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을 내세우며 소수민족 독립을 억제해 왔다. 역사왜곡 공정을 통해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로 연합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서북공정, 서남공정, 그리고 연변자치주의 조선족의 독립을 막기 위한 동북3성 중심의 동북공정이 이루어졌다.

1953년 ‘연변조선족자치주’가 설립될 당시, 조선족의 70.5%가 연변에 거주했다. 그런데 2020년 기준, 연변의 조선족은 30.8%로 감소한다. 등소평의 개혁개방 정책으로 중국이 서구세계의 경제체제를 받아들여 문호를 개방하자 대한민국도 손빠르게 시대적 요청에 따라 1992년 ‘한중수교’를 맺는다. 이후 많은 조선족이 한국에 입국했다. 명목상 직업을 찾아 한국에 들어온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동북공정의 결과다. 중국내 조선족 탄압으로 인한 이주다.

한국내 조선족은 70만8000명으로 늘었다. 이는 중국 연변의 59만7000여명 조

선족 보다 많은 수다. 중국은 지금 조선족 대신 한족을 연변에 이주시키는 정책을 쓰고 있다. 연변조선족자치주를 와해하기 위한 정책이다. 중국 ‘요녕신문’은 2022년1월 18일 인구 센서스 자료를 인용해, 2020년 말 기준 중국 내 조선족 인구가 170만 2479명으로 보도했다. 이는 20년간 22만명이 감소한 숫자다. 중국 내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위기가.

◆ 동북공정 동북공정은 2002년부터 시작하여 2007년에 마쳐졌다. 중국은 고조선, 발해, 고구려, 고려의 역사를 왜곡하되, 특히 고구려 역사를 왜곡했다. 광개토태왕비를 훼손하고 광개토태왕을 중국의 지방분권 ‘호태왕’으로 축소시켜 학생들에게 가르친다. 얼마나 통탄할 일인가. 고구려 왕조가 705년 존속하는 동안 중국의 30여 왕조가 바뀌었다. 특히, 300여 년만에 중원을 통합한 수나라조차 고구려로 인해 망한다. 612년 수 양제는 113만 대군을 동원해 고구려 요동성을 공격하지만 두달이 넘도록 함락하지 못한다. 그래서 결국 포기하고 30만의 병동대를 평양성에 보낸다. 이때 30만명 병동대는 을지문덕장군의 살수대첩으로 몰살당하고, 고작 2700명만이 도주했다. 수 양제의 비문에는 ‘요동에서 일을 벌이다 천하를 잃었다’는 글귀가 쓰여 있다. 고구려와의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저력있는 고구려가 어찌 중국의 한 ‘지방 분권 국가’란 말인가. 어처구니 없는 역사왜곡이다.

동북공정은 문화공정으로 이어진다. ‘김

치’, ‘한복’, 그리고 ‘아리랑’까지 ‘중국 것’이라 한다. 이제 언어공정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연변시에서 ‘중국어 우선사용 정책’을 피고 있다. 연변자치구에서 ‘중국어 우선 표기법’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 조선족 디아스포라의 의의 조선족 디아스포라는 큰 의미를 지닌다. 첫째, 조선족은 고구려, 발해의 활동무대 수호자다. 1909년 불법적 간도협약이 있기 전, 북간도는 조선의 땅이었다. 둘째, 한반도의 북음통일 이후 대한민국 영토 확장의 근거다. 중국 공산당이 붕괴될 시, ‘연변조선족자치주’는 대한민국과 동일한 언어, 전통문화와 관습을 가진 한민족 조선인의 삶에 터전이기도 대한민국 영토로 흡수되기에 충분하다. 셋째, 북한 지하교회 명맥을 이어준 북음전도자다. 1994년부터 1999년까지 북한에 큰 기근이 있었다. 이로 북한 주민 300만 명이 굶어 죽었다. 1998년 북한 주민들은 참다 못해 음식을 찾아 압록강과 두만강을 넘었다. 이때 국경지역에 있던 조선족 처소교회는 이들에게 복음과 음식, 그리고 옷을 제공했다. 상당 수의 북한 주민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 북음전도자의 사명을 갖고 북한사회로 돌아갔다. 이들 대부분이 현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라 말할 수 있다. 넷째, 독립운동가들의 후예다. 연변은 항일무장투쟁의 활동무대요, ‘상해 임시정부’는 1948년 8월15일에 수립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정부’의 모체다. 조선족 디아스포라는 지금도 한반도 북음통일을 위해 귀하게 쓰임 받고 있다.

한민족 디아스포라를 소개함에 조선족 디아스포라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조선족 디아스포라 초기 역사는 연해주 한인 디아스포라와 비슷하다. 당시 19세기 조선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 당시 조선 땅이었던 북간도지역으로 이주한 조선인이다. 일제시대에는 항일무장투쟁의 독립군기지로서, 그리고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지로서 연해주 독립운동가들과 맥을 같이 한다. 하지만, 연변을 중심으로 형성된 조선인 사회는 당시 청나라, 1911년 신해혁명 후 중화민국(中華民國), 그리고 그 이후 공산주의 체제를 추구하는 중화인민공화국(中華人民共和國)이 중국 본토를 장악하는 과정에서 고려인 디아스포라와 다른 역사를 지닌다.

◆ 조선족 디아스포라의 위기 중국은 56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가장 많은 인구를 차지하는 민족이 한족(漢族)이다. 한족은 약14억 인구 가운데 92%를 차지하고 나머지 55개 소수민족이 8%를

CHRISTIAN BUSINESS 크리스천 비즈니스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헤어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레스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드레서가 되고 싶은 분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기독샵 www.Kidokshop.com 쇼핑이 기부가 된다! 기독샵은 판매수익의 10%를 워브리지를 통해 어려운 교회를 돕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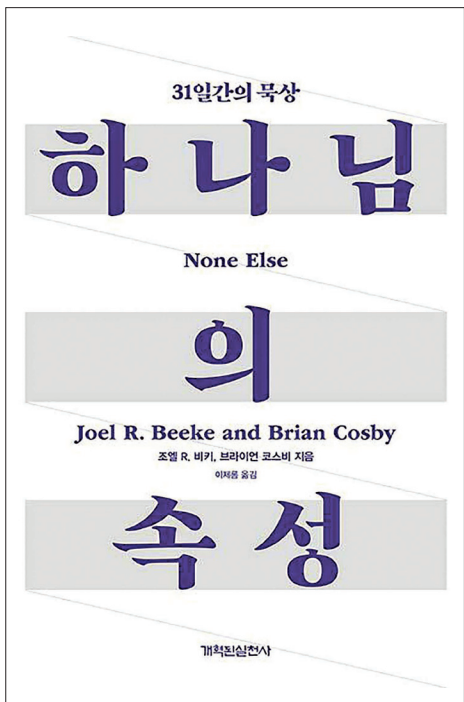
다양한 콘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junimmedia@gmail.com www.junimmedia.com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inexo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각종모임 주문환영 (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영아의 정성이 한 가득... 이리 주문해 주세요! Cooking Mom T. 213.378.8530/213.674.7476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연습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대로 사는 삶의 참 가치와 유익



하나님의 속성: 31일간의 묵상
 조엘 비키, 브라이언 코스비
 이재롬 역
 개혁된실천사 | 256쪽

하나님은 누구시며,
어떤 분일까?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향한 지식과 사랑이
자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겐 무척 어려운 장르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조엘 비키와 브라이언 코스비는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저자들이다. 청교도 개혁주의 신학과 실천을 계속 탐구하고 설명해 온 조엘 비키는 설교, 결혼, 자녀 양육, 영적 성숙을 위한 싸움 등 매일 필요한 말씀의 자원과 은혜에 관하여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다.

조엘 비키와 브라이언 코스비는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할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다. 인간의 이해를 넘어가는 무궁한 하나님의 신성을 조심스럽게 설명할 때는 개혁주의 조직신학의 안전한 틀을 넘어가지 않는다(단순히 개혁주의 신학 교리가 아니라 성경에 근거한 교리이다).

또 저자들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더라'라는 설명에 그치지 않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어떤 감사와 순종으로 예배할 것인지 실천적인 적용을 제안한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매일의 묵상은 지적 호기심을 채우는 데서 그치면 안 된다. 매일을 살아갈 양식처럼 영적 성장 혹은 전쟁에 필요한 실제적 양분과 병력이 되어야 한다.

한편 묵상집은 독자가 얼마나 진심으로 또 성실하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유익과 가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이 책 <하나님의 속성>엔 '생각해볼 질문들'과 '더 깊은 탐구'가 매일 제공되어 독자가 혼자 혹은 그룹과 함께 매일 하나님의 속성을 연구하고 묵상하며 서로 나눌 수 있게 돕는다.

그리스도인의 힘은 주를 알고 기뻐하는 데서 온다. 그들이 함께 주를 알기 위해 애쓰고 나누는 즐거움을 누리다면, 이 책 <하나님의 속성>은 31일간 정말로 유익하고 가치 있는 교재로 영생을 더욱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어떤 독자는 '왜 더욱 실천적인 영역을 매일 다루지 않는가?'라는 의문을 품을지 모른다. 서신서가 복음 교리 이후 매우 구체적인 복음 적용을 제시하는 것처럼,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삶의 원칙을 매일 다루는 것이 더욱 실제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일리 있는 말이긴 하지만, 순서상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 하나님을 알 때 나를 알게 되고, 나의 연약함을 분명히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게 된다.

이것은 매일 우리 삶에 흘러야 할 복음적 선순환으로 우리를 초대하는데, 결국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하는 지혜와 힘을 얻게 한다.

사도 바울이 경고한 대로 말세의 세상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돈과 쾌락을 사랑하도록 우리를 부추긴다. 이런 말세의 진통은 교회 밖이 아니라 안에서 겪는 현상인데, 신앙 서적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서적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얼 해주실 수 있는가에 관심이 쏠린다.

물론 참 기독교는 하나님의 무궁한 영광이 나와 전혀 상관없다고 가르치지 않는다. 창조주, 주권자, 구원자, 능력자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아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는 놀라운 약속이 담겨 있다. 하지만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려면,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한다.

칼빈이 경고한 대로 우리 마음은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우상을 찍어내 하나님 자리를 위협한다.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더진 웅

덩이를 찾는 자는 결코 복된 삶을 살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알 필요가 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첫 번째 질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에 관한 대답,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을 31일간 실천해 보자. 목적대로 사는 삶의 참된 가치와 유익을 충분히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조정희 목사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위원



조엘 비키 총장(오른쪽).

■ 금주의 말씀묵상 | 김영희 권사

오직 여호와만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 박질하이어도 곤비하지, 아니하거갓고 결이거갓고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31

But those who hope in the LORD will renew their strength. They will soar on wings like eagles; they will run and not grow weary, they will walk and not be faint.

ISAIAH 40:31

앞서는 젊은 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트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 칼라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헤어칼라 전문점

헤어칼라
\$40부터 시작

매직스레이트
\$150부터 시작

*단, 칼라만 하시면 \$40부터 시작

프로세서날-웰라 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한 모델의 헤어 칼라는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웰라 제품으로 칼라한 실제 사진들입니다.

WELLA PROFESSIONAL SEBASTIAN

앞서는 멋쟁이들이 찾는 곳
my stylist mystylist

서성록, 한 점의 그림 | 고난 받는 사람들을 위한 연주, 마르크 샤갈

전쟁 중에도 희망을 전하고 싶었던 화가, 샤갈

어떤 역경에도 하나님 신뢰한 다윗왕 떠올라
과거의 고난 기억하는 것, 상처 열어젖히는 일
지금도 고통받는 사람에게 치유와 위로 전네다
유작 통해 자신의 삶과 예술 하나님께 바치다

렘브란트 이후 성경의 장면을 환상적으로 펼친 마르크 샤갈(Marc Chagall, 1887-1985)의 작품을 전시하는 '샤갈과 성경전(마아트 뮤지엄, 2021. 11. 25 - 2022. 4. 10)'이 국내에서 열리고 있다.

그에게 중요한 예술 창조 원천이었던 성경을 주제로 한 특별전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눈길을 모으는데, 이 전시에서는 천지 창조부터 아담과 하와, 아벨과 가인, 요셉, 삼손 등 구약성경 이야기를 다룬 작품을 한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책형도를 비롯해 모세, 다윗과 골리앗, 솔로몬 왕 등 샤갈이 자신만의 해석을 담은 성경 작품도 주제별로 만날 수 있다.

필자가 전시를 보며 가장 인상 깊었던 작품은 <푸른 다윗왕>(King David in Blue, 1967)이었다. 푸른 색조를 배경으로 한 남성성이 비스듬한 자세로 악기를 연주하는 그림이었다.

작품 속에서 다윗왕은 마치 하늘과 땅 사이에서 부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는 평온하게 몸을 누인 자세로 하프를 들고 있으며, 그 아래로는 예루살렘의 풍경과 그의 백성이 위치한다. 음악을 사랑했던 샤갈은 다윗의 시적 감각과 음악에 대한 관심에 친밀감을 느꼈다.

이 그림의 설명에는 “눈물이 찬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듯 푸르게 물든 작품 속에서, 다윗왕은 고통을 이겨낼 만큼 아름다운 하프 연주와 시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사하고 있다”고 적고 있다.

그림에서 슬픈 기색을 한 다윗은 하프를 켜며 백성들에게 연주를 들려주고 있다. 샤갈이 이 장면을 포착한 것은 그의 동족이 제2차 세계대전 중 벌어진 가공할 만한 제노사이드를 애통해하면서도,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곧 구원의 역사가 찾아오리라는 희망을 전하고 싶어서였을 것이다.

사실 샤갈은 생전에 그 자신이 유랑하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러 지역을 떠돌았다. 제정 러시아에 속했던 리오즈나(현재 벨라루스)의 작은 도시 비테프스크의 유대인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러시아에서 공부하고 파리에서 활동하던 중, 제1차 세계대전을 맞아 몇 년간 고향에 피신하였다.

또 다시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지자 파리에 머물던 샤갈은 나치의 핍박을 피하여 미국으로 피신하게 된다. 그는 프랑스를 침공한 나치 정권에 의해 '퇴폐 미술가'로 낙인찍혔고, 유대인 강제수용소로 보내질 위기를 넘

기기도 했다.

미국으로 건너간 샤갈은 유대인의 운명에 관한 고뇌를 담은 그림들을 많이 그렸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받은 피해는 그의 삶에 깊은 상처를 가져왔다.

전쟁 중에 일어난 유대인 학살의 악몽은 그에게 씻을 수 없는 상흔과 충격을 남겼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그 상처와의 싸움은 계속되었는데, 그런 흔적을 보여주는 작품이 바로 <푸른 다윗왕>(1967)이다.

다윗은 지금 낭만적으로 하프를 연주하는 것이 아니다. 언뜻 보면 연화라도 베풀고 있는 것 같지만, 내용은 정반대다. 다윗은 백성들의 슬픔에 함께 공감하고, 이들을 위해 연주를 하고 있다.

작품 오른쪽 귀퉁이에 위치한 신부의 모습은 이스라엘을 일컫는 이미지이자,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쉽게 끊어지는 것이 아님을 나타내고 있다.

샤갈의 성경 그림은 동화적이고 자유로우며 환상적인 특색을 보이고 있다. 그의 작품에는 산양과 닭, 새와 같은 이미지들이 기용되기도 한다. 그의 자유분방한 작품은 중세적 종교 미술의 전통을 무시하고 '가장 위대한 시의 원천'으로 바라보는 작가의 시선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에 대해 가톨릭 신학자 허버트 샤펜(Herbert Schade)은 성경적 회화전통을 자의적으로 취급하였다고 지적하며 “서구 기독교의 전통에 눈이 맞추어져 있는 관찰자에게, 샤갈의 그림 속에 있는 이러한 모티브들은 너무 심하게 혼합되어 나타나 있다”고 비판했다.

그의 그림을 보면 종교적 회화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현실과 환상이 뒤섞여 있어 혼란스러울지도 모른다. 그러나 샤갈의 해석이 관례에 따른 것이었다면, 우리는 그에게서 심층적 깊이를 찾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렇기에 샤갈은 전형성의 익숙함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에게 성경 그림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 사람은 프로테스탄트 화가 렘브란트(Rembrandt)였다. 평소 자신의 작품을 렘브란트와 비교하면서 '몹시 보잘것없는 성서화'라고 말하기도 했다.

네덜란드에서 열린 대규모 렘브란트 헌정 전시를 앞두고는 '두려움'을 피력하기도 했다. 물론 그 두려움은 렘브란트에 대한 존경심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의 작품들에는 렘브란트의 회화에서 차용한 모티브가 곳곳에



마르크 샤갈, 푸른 다윗왕. (캔버스에 유채, 65x81cm, 1967)

서 보여진다.

샤갈의 <웃는 표정의 자화상>은 렘브란트의 판화 <모자를 쓴 웃는 자화상>(1630)을 바탕으로 한 것이고,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인정받는 장면은 에르미타주 미술관에 있는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1669)를 약간 변형한 것이며, 다윗과 사울왕의 그림에서도 네덜란드 바로크 거장의 흔적을, 쉽게 명을 받은 모세의 그림 역시 <심계명을 깨뜨리는 모세>(1659)를 닮아 있다.

샤갈은 자신이 존경하는 화가로부터 영감을 받은 이미지를 변형하여 새롭게 재구성하는 것을 좋아했던 것 같다. 연주하는 다윗 역시 렘브란트의 그림에 등장하는 모티브이지만, 샤갈은 이것을 완전히 새로운 맥락 속에 재배치하였다.

여기서 '새로운 맥락'이란 샤갈이 이 성경의 테마를 현재의 상황으로 바라보았다는 점에 있다. 그의 작품 주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애통해하는 다윗의 연주로 요약되지만, 그것은 과거의 일로 그치지 않는다.

샤갈은 억울하게 죽어가는 유대인들을 보며 어떤 역경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한 다윗왕을 떠올렸고, 이 이미지를 사람들과 공유하고자 했던 셈이다.

과거의 고난을 기억하는 것은 상처를 열어젖히는 일이다. 상처가 크고 기억이 정확할수록 과거의 괴로움은 배가된다. 미로슬라프 볼프(Miroslav Volf)가 <기억의 종말>에

서 말했듯이, 그는 기억 자체로 그치지 않고 기억한 경험을 새로운 빛 아래 비추어 봄으로써 치료되기를 바랐다.

오늘도 세계 여러 나라의 백성들이 테러와 전쟁으로 고난을 받고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이 그림은 여전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성경 속에서 현대적 등가물을 찾는다는 사실이 유효하다면, 그의 작품은 지금도 어느 한 구석에서 고통받는 사람에게 치유와 위로의 노래를 건넬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그는 노년에 발표한 '또 다른 빛을 위하여(1965)'란 시에서 “눈을 감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위해 다시 한 번 그림을 그릴 것”을 다짐한다.

샤갈은 숨지기 전 마지막 유작에 같은 제목을 붙임으로써, 자신의 삶과 예술을 하나님께 바치는 헌신된 모습을 보였다.



서성록 교수
안동대 미술학과

미국 정착의 지름길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미국정착을 도와드립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임상우를 만나십시오

오직 **이민법**만을 취급합니다
투자이민 상담환영

- ▶ 투자비자 및 이민업무
- ▶ 취업비자 및 이민업무
- ▶ 지상사주재원 비자 및 이민업무
- ▶ 종교비자 및 이민업무
- ▶ 학생비자
- ▶ 가족초청 이민업무
- ▶ 체류기간 연장
- ▶ 시민권 취득
- ▶ 추방 재판
- ▶ 기타 전반 이민업무

www.davidlimlaw.com

임상우 이민전문로펌 **213.251.5554**

Law Offices of David S. Lim | 3435 Wilshire Blvd., Suite 2550, Los Angeles, CA 90010 / Fax 213.251.8451



오다가 주웠어

KIDOK SHOP

단체선물 특가전

쿠폰 70% OFF



www.kidokshop.com

기독샵 바로가기

Step 1. 핸드폰 카메라 앱 켜기
Step 2. 좌측 QR코드 스캔



단체선물 기획

1.



퀸센스 6종 프리미엄 칼세트

10세트부터

~~\$369.90~~ \$150

PRICE FOR 10 SETS



단체선물 기획

2.

PLAN 36.5 퍼퓸드 핸드크림 리미티드 에디션 세트



20세트부터

~~\$300~~ \$130

PRICE FOR 20 SETS



BEST SELL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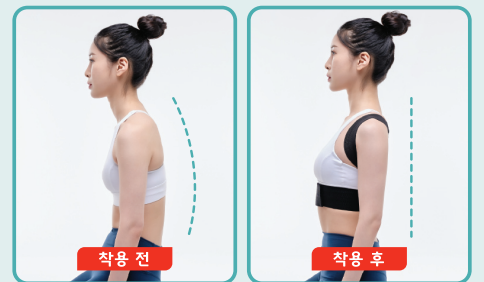
리비스타 어깨 밸런스 밴드

등이 퍼지면 인생도 퍼진다

두껍고 둔탁하게 입지 말고 무봉제 기술로 얇고 가볍게!

할인에 무료 배송까지

~~\$45~~ \$38



어깨를 중심으로 등과 허리까지

단체선물 주문문의

-언제 어디서나 빠르고 간편하게-

1:1 카카오톡 채널 실시간 상담!



스캔하고 상담하기!

전화 상담

213-235-6663

